



수산물 수급정보

제3권 제1호 통권8호 2007년 1월 19일 발행

2005

2003



| 집중분석/3

양식넙치	4
가격변동과 시사점	

| 생산 및 가격동향/9

김	12
미역	19
넙치	23
조피볼락	29
참돔	35
농어	39
굴	44
전복	50

| 수출입동향/57

해조류	58
활어	61
패류	65

| 시장동향/67

김	68
활어	72
전복	76

| 해외동향/83

일본	84
중국	95



focus

Part I

집중분석

양식넙치 가격변동과 시사점

4

집 필 진

- 황기형(총괄)
- 옥영수(생산동향, 수급전망)
- 강종호(가격·시장·해외동향)
- 안재현(김·미역 생산동향, 해황 및 기상)
- 박광서(굴 생산동향, 수출입동향)
- 이남수(활어·전복 시장동향)
- 백은영(김·미역 가격동향, 김 시장동향, 일본 해외동향)
- 김상태(참돔·농어·전복 가격동향)
- 김정협(넙치 생산동향)
- 성진우(전복 생산동향)
- 이창수(조피볼락·참돔·농어 생산동향)
- 김효진(넙치·조피볼락·굴 가격동향, 중국 해외동향)
- 신수정(자료수집)

01

집중분석

양식넙치 가격변동과 시사점



육영수 부연구위원
KMI 수산업관측센터

I. 서론

넙치 종묘 생산기술이 처음 개발된 것은 1965년 일본에서였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양식이 이루어진 것은 1980

년대 인공종묘 생산기술이 보편화되고 나서이다. 이 때부터 해상이 아닌 육상수조식 양식방법이 개발되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1990년대 초 4,000톤 정도이던 넙치 양식량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40,075톤에 이르러 10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산량의 급증은 필연적으로 가격하락을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극심한 가격변동을 불러 일으켜 생산자들의 경영상태를 매우 불안정하게 하

였다. 더구나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각종 바이러스나 말라카이트그린과 같은 유해물질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있을 때마다 소비가 크게 둔화되어 가격하락을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극심한 가격변동은 생산자들의 합리적 생산활동에 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양식넙치의 가격변동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II. 넙치양식업의 산업구조

1. 생산구조

넙치 양식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은 제주도와 완도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 포항 등을 중심으로 한 경북연안과 충남연안에서

다소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역별 생산량 비율을 보면 제주와 완도에서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씩이 생산되고 있으며, 경북과 충남 일원에서는 20%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각 지역별 생산특성을 보면 제주의 경우 온난한 기온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여건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주소비처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과 멀고, 해상으로 수송한 다음 다시 육상으로 수송해야 하는 관계로 수송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제주에서 양식되는 넙치는 일본으로 수출되는 경우가 많다. 대일 수출용 활넙치는 일부 완도산도 있으나 대부분은 제주도산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완도의 경우 제주에 비해서는 기후여건이 다소 불리하나 경북연안이나 충남연안에 비해서는 양호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와 더불어 대표적인 넙치 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한편 경북연안이나 충남연안의 경우 제주나 완도에 비해 자연여건은 불리하지만 주소비처와의 교통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틈새시장으로서 존립되고 있다. 즉 경북연안의 경우 주소비처가 대구나 부산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충남연안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선도농은 활넙치를 공급하여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넙치는 연중 입식이 되고 있으나 대체로 봄, 가을에 집중 입식이 되고 있으며 육상수조식에서 사육될 경우 2년 정도 경과되면

1.5Kg 이상의 큰 크기로 양식할 수 있다. 따라서 봄, 가을 치어 입식을 위해 수조를 비울 경우 홍수출하되는 경향이 있어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하반기, 특히 12월에는 임금 및 각종 경비지불 등 경영비 확보를 위해 출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1~2월의 동절기와 6~8월의 하절기에는 출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2. 유통구조

넙치를 포함한 활어 유통은 일반적인 수산물 유통패턴과 달리 독자적인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 위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위판을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출하하고 있다. 활어의 유통경로는 생산지에서는 대부분 수집상에 의해 수집, 반출되지만 소비지에서는 매우 복잡한 형태를 지니고 있다.

넙치 유통경로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장외도매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남과 인천 활어시장을 들 수 있다. 산지유통인들에 의해 수집된 물량이 이곳을 통해 일반 횡집 등으로 분산되어 나간다. 일반적으로 농산물과 마찬가지로 수산물도 가락동도매시장이나 노량진수산물시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의 역할이 수행되고 있으나 활어의 경우는 전체 물량의 10% 정도 밖에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량은 장외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외에 중요한 활어 장외도매시장으로서는 부산 민락동의 부산활어도

매조합과 중서부권의 활어유통을 담당하는 대천활어시장이 있다.

유통 경로별로는 산지의 경우, 해수어류양식수협을 통해 위탁판매가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그 양이 미미하고 대부분이 물차를 소유한 소규모 중간유통업자나 장외도매시장의 대형유통업자와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넙치의 출하형태는 활어차로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서 최근에는 싱싱회와 같이 가공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또한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넙치 유통에서 특이한 점으로는 출하자가 수송상의 손실률에 대한 손실보전의 형태로 출하자가 일정 부분을 담으로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과잉출하 시기에는 이러한 담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질가격은 더욱 하락하는 등 악순환이 발생하기도 한다.

넙치 출하 형태는 크기에 따라 다양한데, 2Kg 전후의 큰 크기에서부터 500g 전후의 작은 크기까지 출하된다. 이중 대형 사이즈는 대부분 일식집 등 고급횃집에서 소비되고 그 외 중, 소형 사이즈는 대부분 일반 횃집에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형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뼈채 썰기용으로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특정계절에 많이 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소비 특성으로 인해 대형 사이즈의 경우는 가격변화에 대해 덜 민감한 반면, 중, 소형 사이즈의 경우는 가격변화에 대해 민감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양식넙치 가격변동 패턴

1. 농수산물 가격의 일반적 변동패턴

농수산물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몇 가지 특징적인 변동패턴을 가지고 있다. 전형적인 패턴으로서 4가지를 들고 있는데 추세(trend), 순환(circular), 계절(seasonal), 불규칙(irregular) 변동이 바로 그것이다. 추세변동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일정한 추세를 가지고 변동하는 것으로서 대체로 직선적인 추세선을 갖는다. 주기변동은 중기적인 변동으로서 2~3년, 혹은 4~5년의 주기를 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이며 미국에서 옥수수의 공급에 의한 돼지생산주기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계절변동은 농수산물에 있어서 전형적인 것으로서 생산이 계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농업이 발달하면서 계절성은 다소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마지막으로 불규칙변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가격변동으로서 우연변동이라고도 한다. 불규칙변동은 다른 상품이나 거시경제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것으로서 예측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2. 최근의 양식넙치 가격 동향

2000년 이후의 양식넙치 가격변동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은데, 여기에는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의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의 비교를

위해 소비지가격이 처음 공표된 2000년 10월부터 비교하였다. 산지가격은 넙치 주산지라고 할 수 있는 제주의 1Kg당 평균가격을, 소비지가격은 노량진수산시장의 활넙치 도매가격을 사용하였다.

넙치의 산지가격 동향은 2000년 10월 kg당 15,000원에서 2002년 7월 8,750원까지 하락하다가 다시 반등하여 2003년 10월에 15,000원까지 회복하였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지 가격의 경우는 2000년 10월 15,196원에서 2005년 10월 19,130원까지 큰 변동 없이 서서히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격변화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2005년 하반기부터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의 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산지가격과 소비지가격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일 때는 거의 두 배까지 나타난 적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가격차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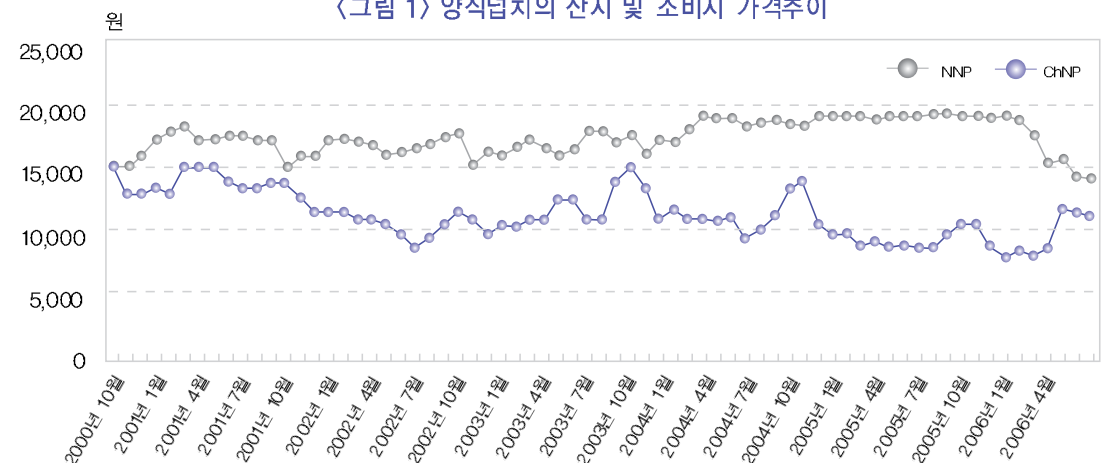
3. 양식넙치 가격변동 패턴

시계열자료 분석에서 자주 이용되는 ARIMA 모형을 사용하여 가격변동 패턴을 분석해 보면 <그림 2>와 같다. 여기서는 몇 가지 변동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하락하였던 양식넙치가격의 추세선이 2002년 중반을 전환점으로 하여 안정추세로 돌아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2000년 5월 20,000원/Kg대이던 넙치 가격은 급락을 반복한 후 2002년 7월 경 그 절반 수준인 10,000원/Kg대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대체로 10,000원/Kg 수준을 축으로 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기적인 순환변동 패턴을 발견

<그림 1> 양식넙치의 산지 및 소비지 가격추이



할 수 있다. 본 분석에 의하면 첫 번째 주기는 2000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대체로 1년 정도의 주기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 주기는 2001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간이나 완전한 사이클이 아니고 반 사이클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 마지막 주기는 2002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4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는데 비교적 명확한 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첫 번째 주기가 1년 정도인데 비해 두 번째 주기는 2년(1년이지만 반 사이클이므로), 그리고 세 번째 주기는 4년으로 점차 주기가 길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생산자들이 시장가격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한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 번째는 어느 정도 계절적 성향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약한 계절변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도별로 구분해 보면 2002년 하반기가 상승기의 첫 번째 계절적 변동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 2003년 상반기에도 다소 가격상승패턴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2003년 하반기의 순환변동치를 크게 상회하는 가격상승과 비교하면 일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2004년 하반기

에는 순환변동상 가격하락기임에도 불구하고 14,000원/Kg대를 상회하는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2005년 하반기에는 하락기의 정점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추세선 수준인 10,000원/Kg을 넘는 가격이 형성되었다. 이후 2006년 상반기에는 다시 가격이 바닥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점차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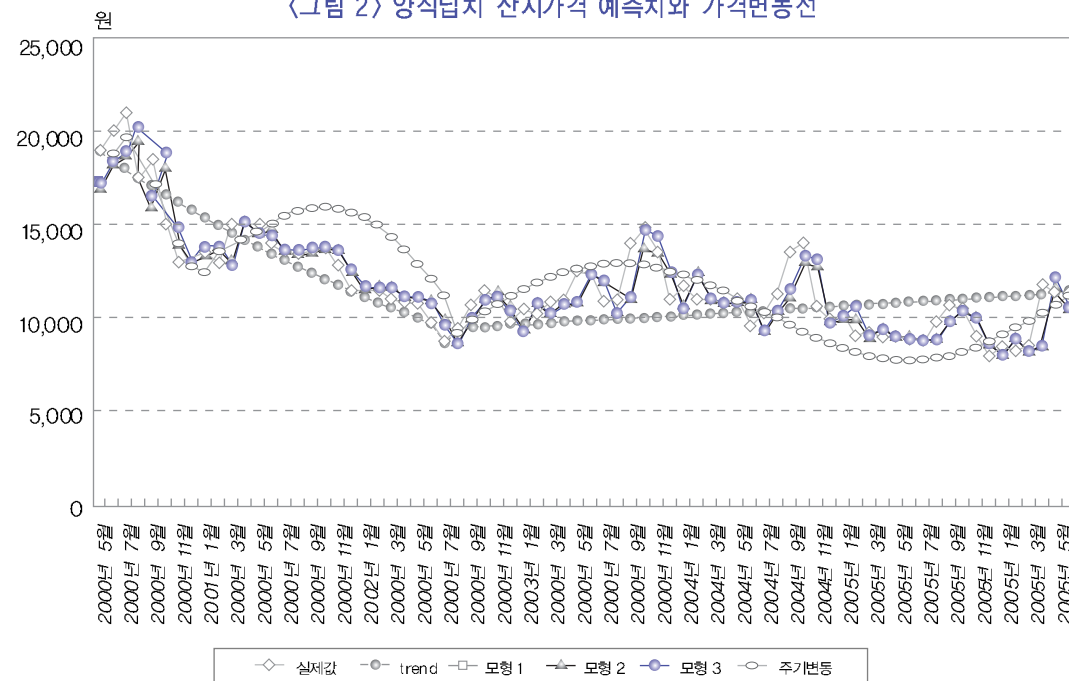
IV. 시사점

이상의 넉치 가격변동분석을 통하여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그 하나는 관측사업의 중요성이다. 최근 소비자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양식넉치 관측사업으로 인해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가격격차가 좁혀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가격하락으로 인해 싼 값으로 소비할 수 있어 소비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되며 늘어난 소비량만큼 생산이 늘어나 생산자로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관측사업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관측사업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관측업무 종사자뿐만 아니라 생산자나 유통업자 모두 관측사업에 애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정확한 관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여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료제공자인 생산자, 시장관계자들이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주고자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끊임없는 가격변동 가운데서도 추세선이 안정경향에 있을 뿐 아니라 뚜렷한 순환변동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가격안정화를 위한 정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더구나 순환변동의 주기가 점차 길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산자들의 생산활동이 가격변동에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정책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가격정책은 다양한 수단이 있지만 특히 가격안정화정책이 유효성을 더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정책수단으로서는 최근 부분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유통협약을 들 수 있다.

〈그림 2〉 양식넉치 산지가격 예측치와 가격변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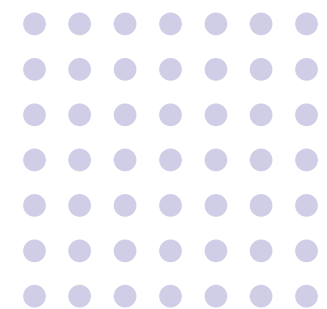




KOREA MARITIME INSTITUTE
FISHERIES OUTLOOK CENTER

Productions
& Prices

Part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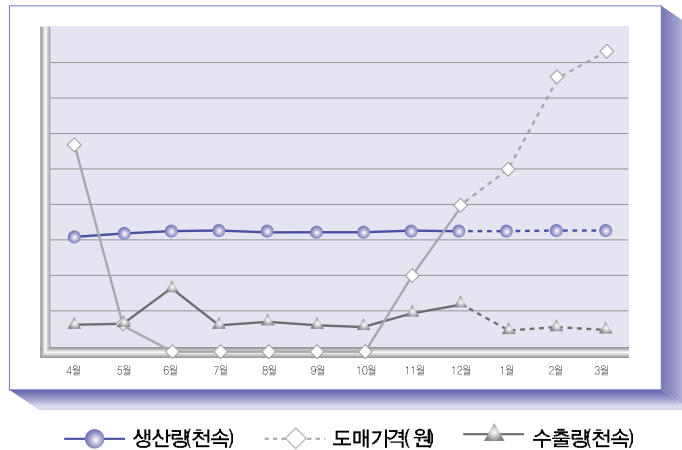


생산 및 가격동향

김	12
미역	19
넙치	23
조피볼락	29
참돔	35
농어	39
굴	44
전복	50

01

김



수급전망

- 2007년산 김 생산은 10월부터 지속된 고수온 현상으로 성장이 부진하였다. 거기다 12월 초까지 마른김 생산자들과의 분쟁도 겹쳐 12월까지의 생산은 크게 저조하였다. 한편 1월초까지 고수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향후 생산전망도 그리 밝게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주생산기인 1~3월의 해황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예년 생산수준보다 적을 것으로 보여진다.
- 김 도매가격은 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대체로 강보합세를 보였으며 이런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겨울철 수요 특성으로 인해 큰 폭의 상승은 보이지 않은 채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 2007년산 김 시설
2006년산보다
2.4% 증가

표본어가 대상 김 시설량 설문조사 결과(2006년 12월), 2007년산 김 시설책수는 2005년 대비 2.4% 증가한 약 70만 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50만 책, 전북 10만 책, 충남 6만 4천 책, 부산 2만 4천 책, 인천·경기 1만 6천 책의 순이었다.

2006년산 시설 대비 증감률을 보면, 경기, 전북, 전남은 각각 11.7%, 5.7%, 2.4% 증가하였고, 부산과 충남은 각각 4.6%, 1.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7년산 김 생산 지역별 시설책수 〉

(단위 : 만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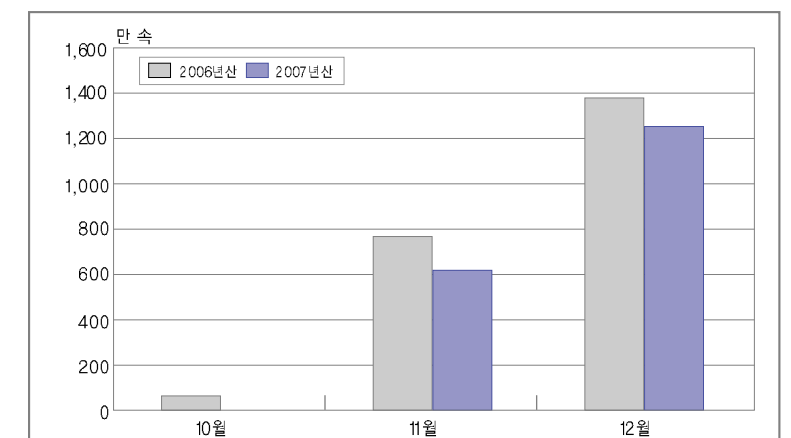
구분	전국	전남	전북	충남	부산	인천·경기
2006년산 (위성판독결과)	68.54	48.40	9.67	6.46	2.54	1.47
2007년산 (12월 시설조사)	70.20	49.54	10.22	6.38	2.42	1.64
2005년 대비(%)	2.4	2.4	5.7	-1.3	-4.6	11.7

* 당 센터, 2007년산은 표본어가(16명) 설문조사 결과(12월 15~21일)

- 4/4분기 김 생산량,
2005년 동기 대비
15.2% 감소

2006년 4/4분기의 마른김으로 환산한 김 생산량은 1,863만 속으로 2005년 동기간 생산량 2,197만 속보다 15.2%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월별 김 생산량 추이 〉



* 당 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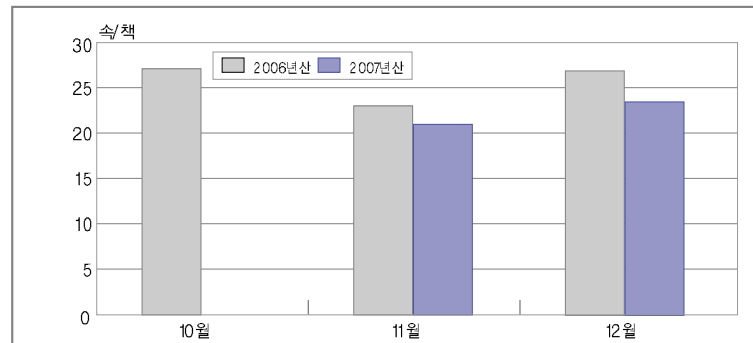
● 대부분 어장에서
생산 저조

10월 하순부터 생산되는 잇바디돌김은 면세유 공급을 요구하는 마른김 생산업체의 일시적인 가동중단으로 생산량이 극히 미미하였다. 또한 11월에는 전월부터 지속된 고수온의 영향으로 업체가 탈락하거나 품질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잇바디돌김 생산이 조기에 종료되었다. 일반김(11월 채취 시작)과 모무늬돌김(12월 채취 시작)도 성장 초기 고수온과 산발적인 강풍으로 예년에 비해 생산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06년 4/4분기
김 작황, 작년 동기
대비 부진

2007년산 김 생산이 시작되는 2006년 4/4분기의 김 작황*(1회 채취시 1책당 생산량)은 평균 53.0kg으로 2005년 동기 대비(60.2kg) 11.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4분기 평균 채취횟수 역시 1.15회로 2006년산보다 6.5%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작황(1회 채취시 1책당 생산량) 추이 〉



* 당 센터 추정치

* 작황 및 채취횟수 산출기준 :
2006년 10월에는 김 생산이
거의 없음. 따라서 4/4분기
작황과 채취횟수는 11월과
12월의 평균값임

● 전 해역 평년 대비
고수온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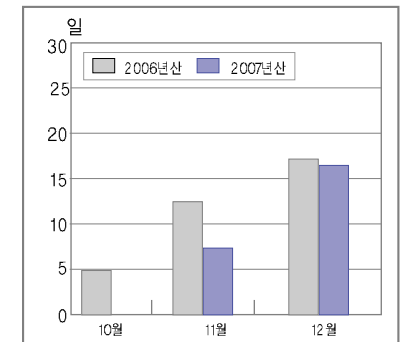
9월 하순의 김 채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나 10월 초순부터 전 해역에서 고수온 현상과 함께 부분적으로 가뭄, 안개 등 해황 악화가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김 성장이 부진하였고, 채취도 지연되었다. 11월 중순부터는 수온이 하락하면서 업체의 활력이 점차 회복되었다. 그러나 12월 중순부터 전 해역에서 다시 평년보다 높은 수온이 지속되면서 김 성장이 계속 부진하였다.

● 4/4분기 마른김
생산업체 가동일수,
2005년 동기
대비 31.7% 감소

1월부터는 전남 진도·해남·완도 등을 중심으로 동아채묘 김 생산이 시작된다. 따라서 수온이 평년 수준으로 하락한다면 생산량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4/4분기 마른김 생산업체들의 평균 가동일수는 약 24일로 2005년 동기보다(약 35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수온 지속 및 마른김 생산업체의 일시적인 가동 중단 등으로 물김 생산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1월에 안정적인 해황이 지속될 경우, 마른김 생산업체의 월평균 가동일수는 20일, 1일 평균 생산량은 2,600속으로 예상된다.

〈 마른김 생산업체 월별 가동일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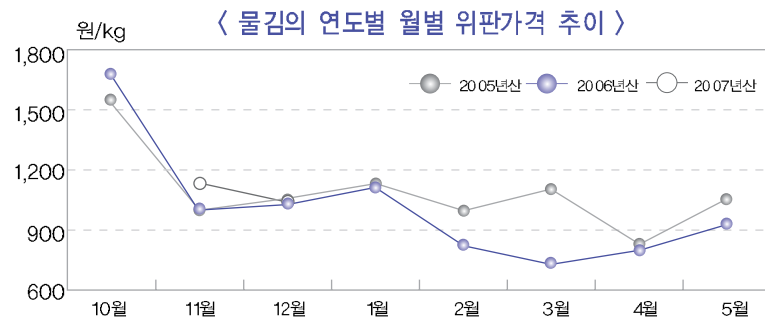
* 당 센터 추정치

가격동향

2006년 4/4분기 물김 위판 가격, 2005년 동기 대비 2.3% 상승

4/4분기의 물김 위판가격은 2005년 동기에 비해 2.3% 상승한 kg당 1,06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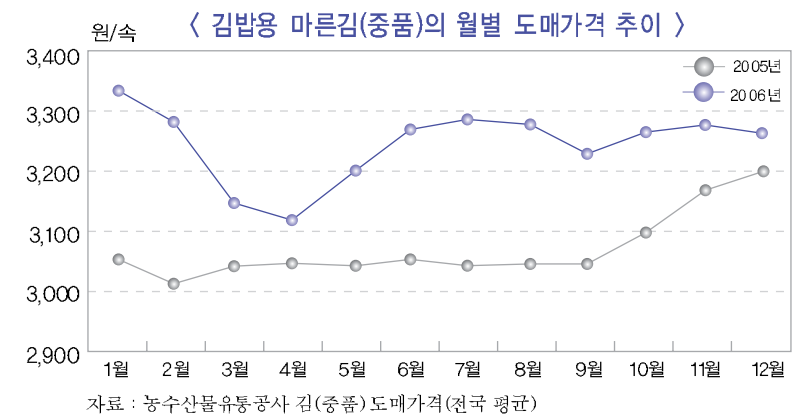
월별로 보면 10월에는 잇바디돌김의 생산시기에 고수온으로 인한 업체 성장 부진과 마른김 생산업체들의 일시 가동 중단으로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1월에는 2005년 동월에 비해 13.2% 상승한 kg당 1,140원이었는데, 2005년 동월보다 물김 위판량이 60% 이상 적었고 가격이 높은 잇바디돌김의 조기 종료로 실제 가격 상승폭은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2월의 위판가격은 kg당 1,027원으로 2005년 동월 대비 1.4% 상승하였다. 이는 본격적인 생산에 접어든 일반김과 모두늬돌김의 품질이 예년에 비해 다소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주 : 2006년 10월에는 각 지역 모두 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자료 1) 2005년산은 7개 수협(부산, 의창, 완도, 해남, 진도, 고흥, 소안)
 2) 2006년산과 2007년산은 9개 수협(부산, 의창, 완도, 해남, 진도, 고흥, 신안, 소안, 서면)

마른김 도매가격, 2005년 4/4분기 대비 3.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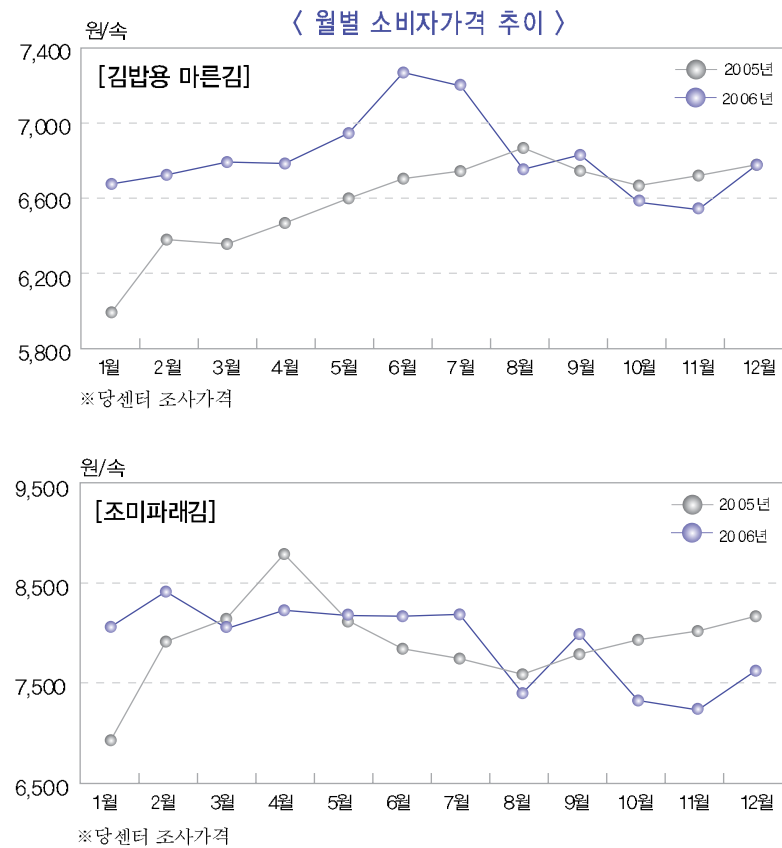
김밥용 마른김 중품의 4/4분기 평균 도매가격은 속당 3,263원으로 3/4분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는데, 이는 재고물량 확보를 위한 도매업체들의 매수가 도매시장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동기에 비해서는 재고 보유물량의 감소로 3.5%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월별로 보면, 9월에는 속당 3,229원으로 전월에 비해 소폭 하락한 후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서 12월에는 속당 3,256원이었다.



김밥용 마른김과 조미파래김의 소비자 가격, 3/4분기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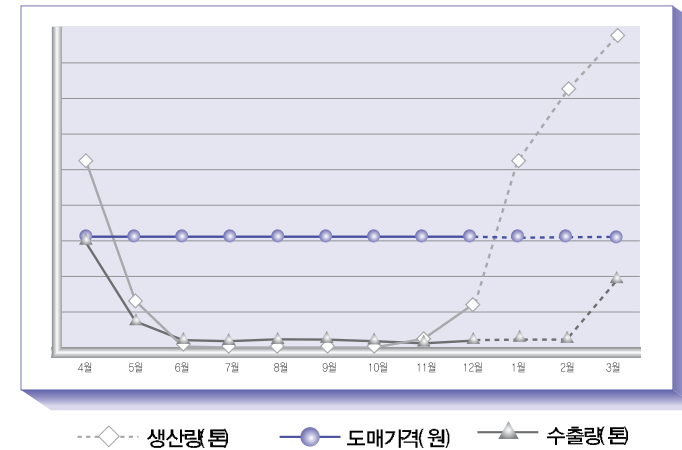
김밥용 마른김의 4/4분기 평균 소비자가격은 속당 6,638원으로 3/4분기 및 2005년 동기 대비 각각 4.4%, 1.5% 하락하였으며, 조미파래김도 속당 7,361원으로 각각 6% 이상 하락하였다.

월별로 보면, 김밥용김은 9월 이후 하락한 후 12월에는 전월 대비 약 4% 상승한 속당 6,786원이었다. 또한 조미파래김도 9월 이후 하락한 후 12월에 다소 회복되면서 전월 대비 5.7% 상승한 속당 7,600원이었다. 두 제품 모두 12월에 가격이 상승한 것은 11월의 산지가격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미역

02



수급전망

-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생산증가 추세를 보여 2006년산의 경우 33만 3천 톤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7년산은 수온 상승 등 해황여건이 좋지 않아 2006년산에 비해 생산이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미역 도매가격은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07년산 미역생산이 부진함에 따라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비자 가격 중 봉지미역은 큰 변동이 없을 것이나 여타 품목 가격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동향

● 2007년산 미역 양식시설량 2006년산과 비슷

2007년산 미역 양식시설량은 2006년산 대비 0.4% 감소한 15만 2천 대*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2만 6천 대를 시설하여 전국 대비 82.6%로 가장 많았고, 부산과 울산이 각각 6.2%, 6.0%를 차지하였다. 경북 경주는 원전보상으로 미역 양식어가의 80% 이상이 양식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7년산 미역 양식시설 현황 〉

(단위 : 대)

구분	2006년산	2007년산	작년 대비(%)	지역비중(%)
전국	153,516	152,876	-0.4	100.0
전남	133,463	126,216	5.9	82.6
부산	9,516	9,435	-0.9	6.2
울산	9,063	9,063	0.0	6.0
기타	8,145	7,505	-7.9	4.9

주 : 기타는 경북, 경남, 충남을 포함

자료 : 각 시·도 및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11월까지의 미역 생산량, 2006년산 동기와 비슷

2007년산 10~11월 미역 생산량은 772톤으로 2006년산 동기 대비 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2007년산 월별 미역 생산량 동향 〉

(단위 : 톤)

구분	10월	11월	합계
2006년산	4	742	746
2007년산	0	772	772

주 : 10월은 자연산임

자료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 12월 생미역 작황, 작년 동월 대비 극히 부진

그러나 전남 완도와 부산을 중심으로 11월 하순~12월에 채취되는 생미역 생산은 매우 저조하였다. 이는 미역 양식 초기(10월)부터 지속된 고수온으로 종묘 폐사가 많아 작황이 크게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간미역과 건미역의 지역별 생산 시작시기는 아래 표와 같다.

〈 2007년산 지역별·품목별 미역 생산시작 시기 〉

구분	간미역			건미역	
지역	완도, 부산	고흥, 장흥	포항	신안	울산, 진도
생산시작 시기	1월	2~3월	3월	1월	2월

자료 : 각 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사무소

가격동향

● 2007년산 물미역 산지가격, 2006년산 대비 50% 이상 증가

2006년 11월 5일, 완도군 보길지역에서 처음으로 2007년산 물미역이 거래되었는데, 산지가격은 40kg 1포대 당 평균 40,000원으로 2005년 첫 시세보다 50% 이상 높았다.

한편 부산기장은 12월 10일경에 첫 거래가 시작되었으며, 물미역 산지가격은 40kg 1포대 당 58,000원으로 2005년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이는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 도매가격, 2005년 4/4분기 대비 보험세

2006년 4/4분기의 미역 도매가격은 3/4분기에 비해 변화가 없으며, 2005년 동기에 비해서도 거의 모든 제품들이 비슷한 가격 수준을 유지하였다. 제품별로는 가닥미역 중각의 중품 도매가격이 1매당 3,000원으로 2005년 동기 대비 3.4% 하락하였다.

〈 미역의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2005년 동기 대비(%)
가닥 미역	중각 (1매)	상	3,750	3,750	3,750	3,750	0.0
		중	3,000	3,000	3,000	3,000	-3.4
	단각 (1매)	상	1,125	1,125	1,125	1,125	0.0
		중	875	875	875	875	0.0
실미역(100g)		중	540	540	540	540	0.0

주 : 가닥미역은 20매, 실미역은 1kg 벌크 포장을 기준 단위로 환산한 가격
 자료 :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조사가격

- 4/4분기 가닥미역과 자른미역 소비자가격, 3/4분기 대비 하락

2006년 4/4분기의 미역 소비자가격은 실미역을 제외하고 3/4분기에 비해 하락하였다. 제품별로 보면 가닥미역과 자른미역의 소비자가격은 100g당 3,799원, 50g당 1,173원으로 3/4분기 대비 각각 1.4%, 2.9% 하락하였으나, 실미역은 100g당 1,873원으로 3/4분기 대비 4.8% 상승하였다.

〈 미역의 소비자가격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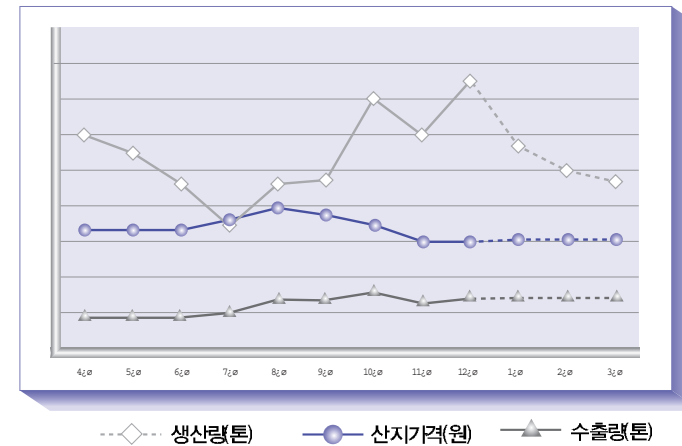
(단위 : 원)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가닥미역(100g)	3,637	3,769	3,991	3,799	-1.4
실미역(100g)	1,692	1,962	3,965	3,873	4.8
자른미역(50g)	1,131	1,198	1,190	1,173	-2.9

주 : 각 제품별 소포장 가격임
 ※당센터 조사가격

넙치

03



수급전망

- 2006년 하반기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7년 들면서 감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2006년 초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추세는 2월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006년 여름 Kg당 13,500원까지 보였던 가격수준은 이후 다소 하락하였으나 연말 들어 안정 기조를 보였다. 특히 연말 출하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지가격은 Kg당 11,000원 수준을 유지하였다. 2007년 들어서 출하량이 줄어들 것이나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서 Kg당 11,000원 전후는 유지할 것이지만 2월에는 명절특수로 가격상승이 예상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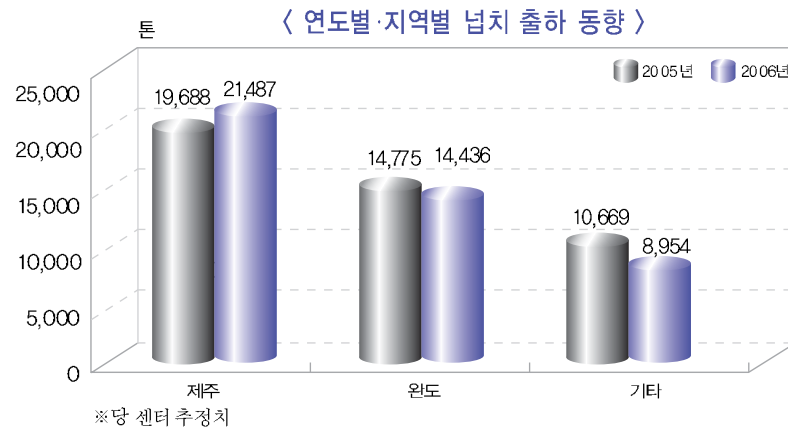
생산동향

2006년 넙치 출하량 2005년과 비슷

2006년도 활넙치 총 출하량은 44,877톤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2005년 45,133톤과 비교해 0.6% 감소한 것이다.

크기별로 2005년과 비교해 보면, 500g 미만과 500g ~ 1kg 크기가 각각 7.0%, 3.2% 증가한 2,550톤, 20,704톤이었다. 반면 1kg 이상은 2005년 대비 4.7% 감소한 21,623톤이 출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누적 출하량은 제주가 대일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주산의 국내소비 증가로 2005년보다 9.1% 높은 21,487톤으로 추정되었다. 반면 완도는 2005년보다 2.3% 감소한 14,436톤이었으며, 기타 지역은 기장 등 일부 지역에서 양식사업을 그만 둔 어가들의 영향으로 2005년 대비 16.1% 감소한 8,954톤을 출하하였다.



4/4분기 출하량, 전 분기보다 37% 이상 증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출하량이 증가하는 4/4분기는 전 분기보다 37.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기별로는 모든 크기에서 출하량이 증가했는데, 특히 500g 미만과 1kg 이상이 3/4분기에 비해 각각 63.7%, 55.0% 증가하였다. 또한 500g ~ 1kg은 20.0% 증가한 5,866톤이었다.

《 월별·크기별 넙치 출하 동향 》

(단위: 만마리)

구분	2005년 4/4분기	2006년					3/4분기 대비(%)	2005년 동기대비 (%)
		3/4 분기	10월	11월	12월	4/4 분기		
합계	10,135	9,646	4,519	4,002	4,771	13,290	37.8	31.1
500g 미만	465	608	353	216	426	995	63.7	114.0
500g~1kg 미만	3,520	4,888	2,071	1,633	2,162	5,866	20.0	66.6
1kg 이상	6,148	4,150	2,095	2,153	2,183	6,431	55.0	4.6

※당 센터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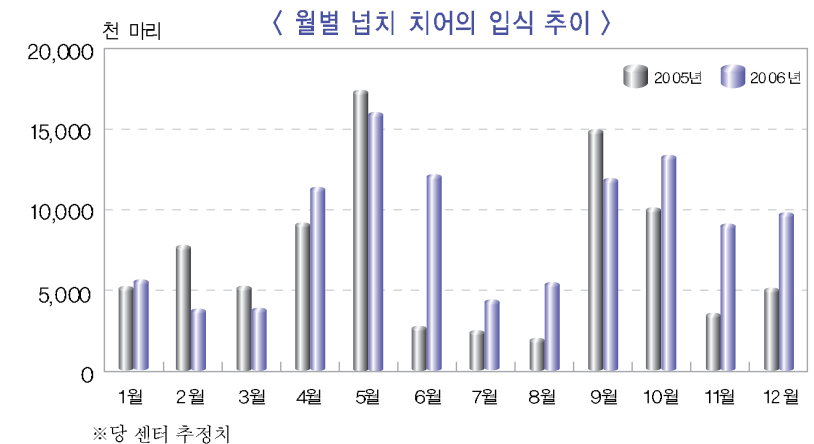
지역별로 보면, 제주가 3/4분기보다 45.5% 증가한 6,114톤을 출하하였다. 또한 완도와 기타 지역은 전 분기 대비 각각 27.1%, 40.5% 증가한 4,285톤, 2,891톤이었다.

2006년 입식량, 2005년 대비 13% 증가한 1억 866만 마리로 추정

2006년도 총 입식량은 1억 866만 마리로 2005년의 9,599만 마리보다 13%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4/4분기 입식량은 3,170여만 마리로 전 분기보다 39% 증가하였지만, 2005년 동기보다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2006년 한 해 동안 입식된 치어에서 폐사가 많아지면서 양식 어가들이 입식량을 늘렸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하반기 주입식 시기인 10월에 1천 339만 마리가 입식되었다. 한편 동절기인 11월과 12월에는 각각 856만 마리, 983만 마리가 입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별·크기별 양성물량 동향 〉

(단위 : 만마리)

구분	7월말	8월말	9월말	전월 대비(%)	2005년 동기 대비(%)
합계	9,771	9,992	9,638	-3.5	-7.1
250g미만	5,427	5,213	5,427	4.1	30.1
250~500g미만	2,315	2,169	2,066	-4.7	-33.1
500g~1kg 미만	1,786	2,296	1,822	-20.6	-26.7
1kg이상	243	314	320	1.9	-49.5

※당 센터 추정치

● 4/4분기 양성상태, 예년보다 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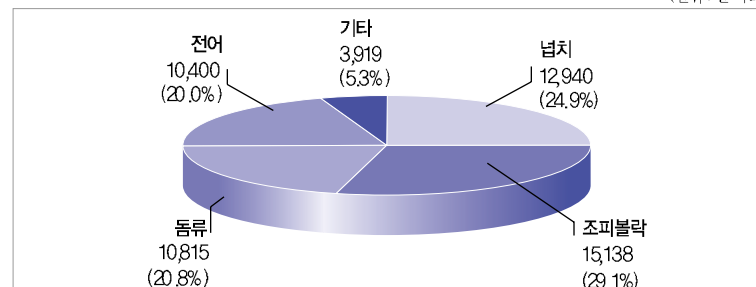
4/4분기 월별 양성상태를 보면, 10월에는 예년보다 수온이 높았기 때문에 성장상태가 양호하였다. 한편 폐사량은 동절기 들어 감소하기 시작했다. 11월의 양성상태는 전월에 비해 다소 나빴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완도에서 300g 미만 크기의 치어에서 폐사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12월의 양성상태는 예년에 비해 수온이 1~2 가량 높게 유지되면서 섭이가 전월보다는 감소했지만, 예년에 비해 좋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양식어가 설문조사 결과, 4/4 분기 폐사량은 전 분기보다 감소하였는데, 이는 2005년 동기에 비해서도 감소한 것이다. 하지만 9월 이후 입식된 치어에서 폐사율이 일정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6년 어류 종묘 생산량 중 넙치가 24.3% 차지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조사결과, 2006년도 어류 총 종묘생산량은 약 5억 3,212만 마리로 나타났다. 이 중 넙치 종묘는 전체 종묘생산량의 24.3%를 차지하는 1억 2,940만 마리였다.

〈 2006년 어류 종묘생산 현황 〉

(단위 : 만 마리)



주 1) 기타 어종에는 숭어, 농어, 노래미, 쿼치 등이 포함됨(패류 및 해삼제외)

2) 동류에는 돌돔, 참돔, 감성돔만 포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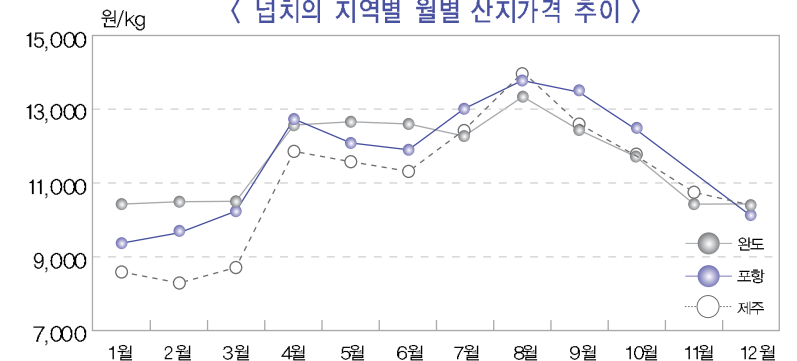
자료 : 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가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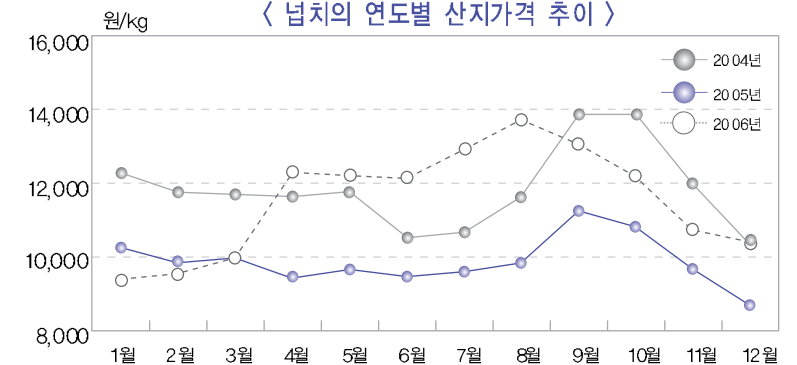
● 산지가격, 3/4분기 대비 하락

4/4분기 1kg 크기 넙치의 산지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지난 분기 대비 13.8%, 2005년 동기 대비 6.0% 하락한 kg당 평균 11,317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10월 이후 산지가격이 꾸준히 하락하여 제주와 완도가 12월에 각각 kg당 평균 10,500원, 11,000원이었다.

〈 넙치의 지역별 월별 산지가격 추이 〉



〈 넙치의 연도별 산지가격 추이 〉



주 1) 마리당 1kg 크기의 가격. 중량은 +50g, 가격은 ±500원/kg 차이가 있음.

2) 포항은 11월에 1kg 크기의 위판실적이 없었음

자료 : 각 지역 해수어류양식수협(포항, 제주, 완도)

● 도매가격,
3/4분기 대비
하락

4/4분기의 넙치 도매가격은 시장반입량이 늘어나 3/4분기 대비 4.0% 이상 하락하였으나, 2005년 4/4분기에 비해서는 18.0% 이상 상승하였다. 시장별로는 인천과 하남이 3/4분기 대비 각각 4.2%, 7.9% 하락한 kg당 평균 12,950원, 13,250원이었다. 특히 부산은 3/4분기 대비 13.3% 하락하여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 넙치의 도매가격 동향 〉

(단위: 원/kg)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
인천할어도매업 협동조합	13,250	13,600	12,750	12,500	12,950	-4.2
하남할어 유통조합	14,600	14,500	13,250	12,000	13,250	-7.9
부산할어도매업 협동조합	14,500	13,250	12,750	10,300	12,100	-13.3

주: 900g~1.0kg 크기의 kg당 가격

자료: 각 시장별 조사가격, 12월은 잠정치

● 피쉬세일 소비자가격,
3/4분기 대비
하락

4/4분기의 피쉬세일 소비자가격은 지난 분기 대비 0.9% 하락한 kg당 평균 27,659원이었다. 한편 바다마트는 지난 분기 대비 3.2% 상승한 kg당 평균 30,552원이었다.

〈 넙치의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
바다마트 ¹⁾	30,603	30,592	30,437	30,552	-3.2
대형소매점 ²⁾	30,860	28,305	27,593	28,919	-
피쉬세일 ³⁾ (상성회)	28,688	27,350	26,938	27,659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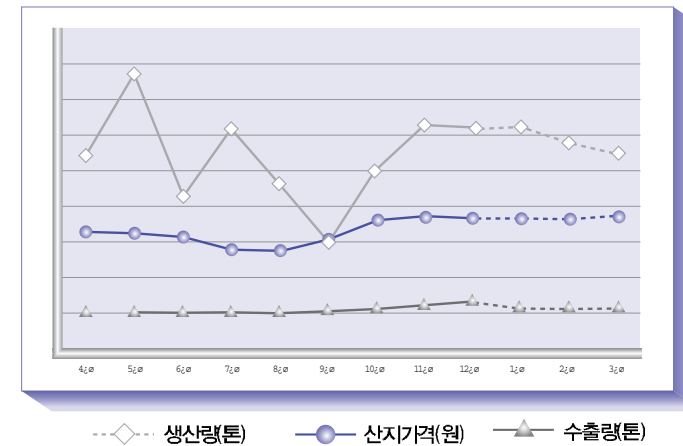
주: 1) 수협중앙회 잠실 본점의 활넙치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임.

2) 당센터 조사가격

3) 수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fishsale.com>), 상성회는 활어 1kg의 가격임.

조피볼락

04



수급전망

- 2006년 하반기 이후 출하량의 증가추세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06년 5월 3,800여 톤을 정점으로 3/4분기 다소 줄어들던 물량이 11~12월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추세는 2007년 1~2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양성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3월경에는 증가세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물량의 증가로 산지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7~8월에 Kg당 5,500원 전후로 바닥을 보였던 도매가격은 10~11월 7,000원대까지 상승하였으나 12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출하물량 증가에 따라 2007년 1/4분기까지 이어져 7,000원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 4/4분기 출하량,
8,680톤 추정

4/4분기 조피볼락 출하량은 8,680톤으로 추정되었다. 월별 출하량은 11월이 3,121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12월은 전월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연말을 맞아 출하량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수요가 예상보다 부진했기 때문이다.

크기별로는 400~500g 크기가 3,435톤 출하되어 전체 출하량의 약 40%를 차지하였으며, 500~600g 크기는 2,365톤이 출하되었다. 월별로는 11월까지의 400~500g 크기가 주로 출하되었으나 12월 들어 500g 이상 크기의 출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 크기별 조피볼락 출하량 동향 〉

(단위 : 톤)

구분	10월	11월	12월	4/4분기
합계	2,496	3,121	3,063	8,680
400 미만	328	671	706	1,704
400~500	1,199	1,313	924	3,435
500~600	681	774	909	2,365
600 이상	289	363	524	1,175

※당 센터 추정치

● 4/4분기 지역별
출하량, 경남이
56.7%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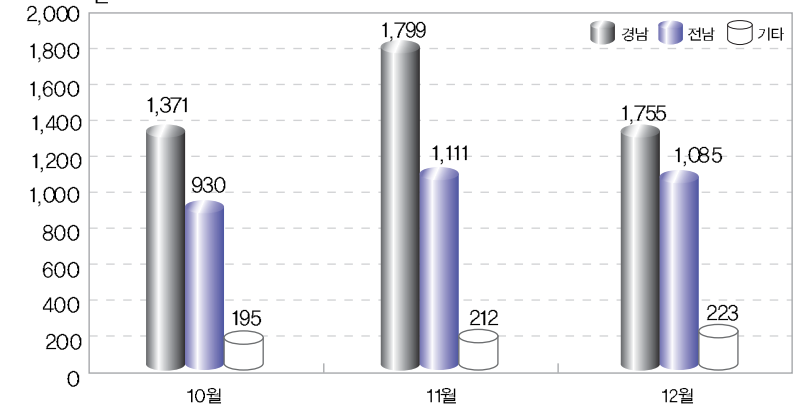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경남의 출하량이 4,924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과 기타지역은 각각 3,126톤, 630톤이었다.

4/4분기 들어 전남의 출하량이 예년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주요 산지 중 한곳인 흑산도에서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월별로는 11월 들어 모든 지역의 출하량이 전월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12월 들어서는 전월에 비해 1.9% 감소하였다.

● 12월 양성물량,
3억 9천 만마리● 4/4분기 양성상태,
2005년보다는
줄지 못해

〈 월별 · 지역별 조피볼락 출하량 동향 〉



※당 센터 추정치

전국의 조피볼락 양성물량은 12월 현재 총 3억 9,598만 마리로 추정되었다. 이 중 300g 미만은 2억 3,667만 마리로 전체 양성물량의 59.8%를 차지하였으며 주 출하 크기인 400~500g 크기는 3,939만 마리로 9.9%를 점했다.

〈 전국 조피볼락 양성물량 동향(12월 말 기준) 〉

(단위 : 만마리)

크기	300 미만	300~400	400~500	500~600	600 이상	합계
물량	23,667	10,092	3,939	1,315	585	39,598
점유율(%)	59.8	25.5	9.9	3.3	1.5	100.0

※당 센터 추정치

4/4분기 들어 수온이 조피볼락 성장에 알맞은 온도로 내려가기 시작하면서 양성어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으며, 섭이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성장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4/4분기 양성상태를 2005년 동기와 비교해 보면 다소 좋지 못했다. 월별로는 10월과 11월은 2005년보다 부진했으며, 12월 들어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수온이 2005년에 비해 오래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온도 대체적으로 2~3℃ 높았기 때문이다.

2006년 조피볼락 치어생산량 가장 많아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조사결과 2006년도 가두리양식어류의 치어 생산량은 2005년에 비해 30.2% 증가한 3억 940만 마리였으며 그 중 조피볼락이 1억 5,138만 마리로 가장 많았다.

2005년과 비교해서는 조피볼락과 송어가 각각 22.2%, 32.0% 감소하였다. 그러나 돔류와 전어의 치어생산량은 2005년보다 20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돔류 및 전어의 향후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두리양식어류의 치어 생산량 동향 〉

(단위: 만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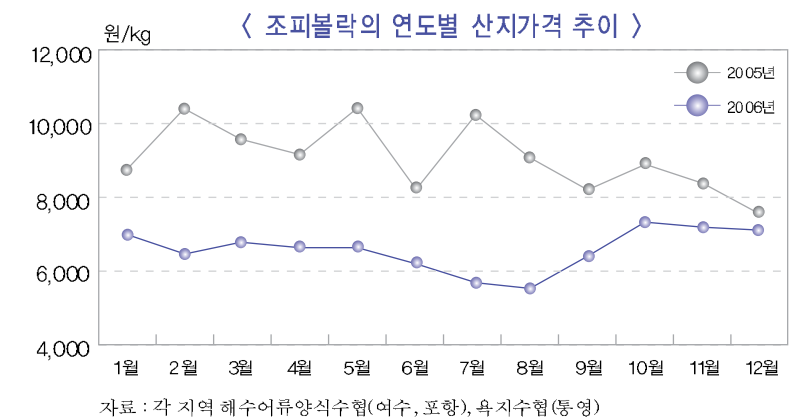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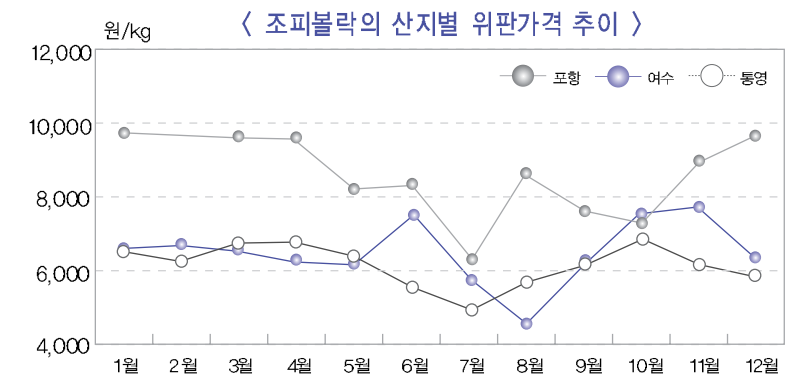
구분	조피볼락	돔류	전어	송어	기타	합계
2005년	19,450	3,500	3,000	2,500	2,490	30,940
2006년	15,138	10,815	10,400	1,700	2,219	40,272
2005년 대비(%)	-22.2	209.0	246.7	-32.0	-10.9	30.2

주: 돔류는 참돔, 돌돔, 감성돔만 포함
자료: (사)한국해산어류종묘협회

가격 동향

산지가격, 2005년 4/4분기 대비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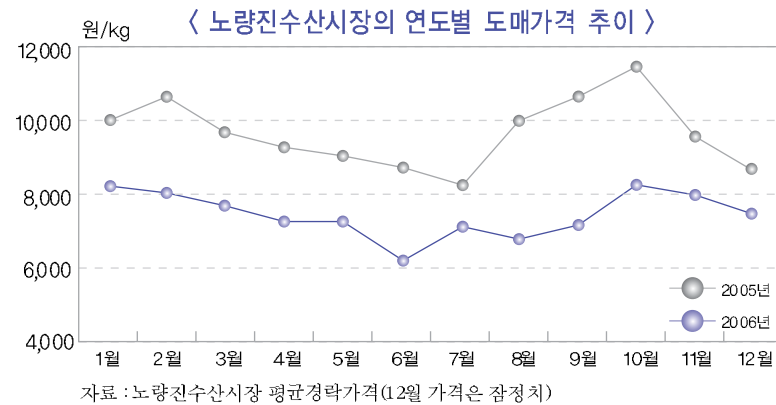
조피볼락의 4/4분기 산지가격은 2005년 동기에 비해 15.8% 하락한 kg당 평균 6,996원이었다. 이는 조피볼락의 출하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자연산 및 양식산 어종의 출하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여수와 통영은 10월 이후 꾸준히 가격이 하락하여 12월에는 각각 kg당 평균 6,446원, 5,891원이었다.



● 도매가격, 2005년 4/4분기 대비 하락

노량진수산시장의 4/4분기 조피볼락 도매가격은 2005년 4/4분기에 비해 20.4% 하락한 kg당 평균 7,900원이었다.

월별로 보면 10월에 연중 최고치인 kg당 평균 8,241원을 기록하다 점차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12월에는 kg당 평균 7,413원이었다.



● 소비자가격, 2005년 동기 대비 하락

조피볼락 소비자가격은 2005년 동기 대비 모두 하락하였다. 바다마트와 피쉬세일은 2005년 동기 대비 각각 1.2%, 2.4% 하락한 kg당 30,388원, 29,028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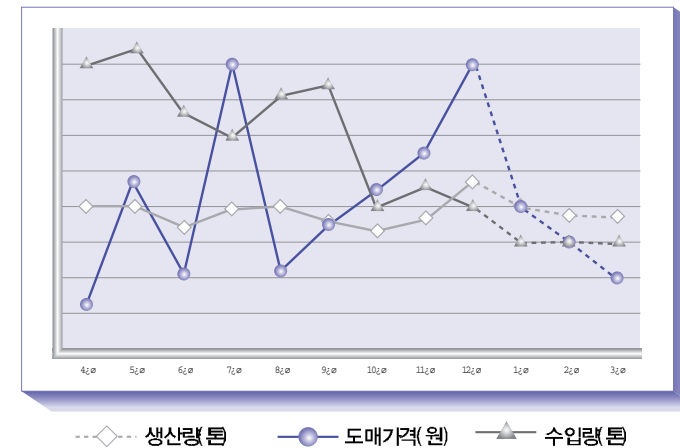
< 조피볼락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2005년 동기 대비(%)
바다마트 ¹⁾	30,452	30,341	30,417	30,388	1.4	-1.2
대형소매점 ²⁾	29,030	30,500	30,500	30,010	-	-
피쉬세일 ³⁾ (상상회)	30,583	28,250	28,250	29,028	-1.7	-2.4

주: 1) 수협중앙회 잡설 본점의 월별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임
 2) 대형소매점의 월별 1kg의 주별 평균 소비자가격
 3) 수산물 전문 전자상거래 사이트(<http://www.fishsale.com>), 상상회는 월 1kg 기준 가격임

참 돔

05



수급전망

- 참돔 생산량은 2003년부터 크게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나 2006년의 경우 상반기에는 생산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하반기부터 출하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여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7년 1/4분기에는 연말 출하의 여파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6년 9월 도매가격이 Kg당 10,000원 이하로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12월에는 수요증가로 인해 강세를 보여 13,000원을 상회하였다. 2007년 1/4분기에는 수급의 안정을 보이는 가운데 11,000원 전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05년보다 10% 정도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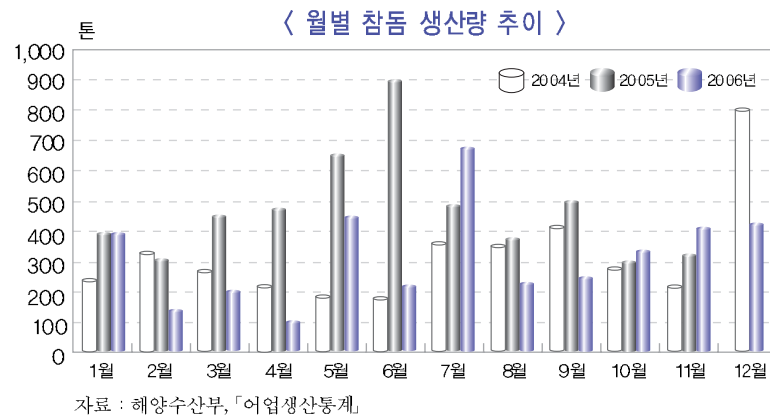
생산동향

- 11월까지의 생산량, 2005년보다 28.8% 감소

2006년 11월까지 참돔의 생산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8.8% 감소한 3,752톤이었다. 이는 2005년 겨울 동사 피해로 출하가 가능한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8월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생산량은 2005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1,312톤을 기록하였으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양성어가 성장함에 따라 출하가 가능한 물량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10월과 11월의 생산량이 2005년 대비 각각 8.6%, 59.8% 증가한 444톤, 521톤 이었다.



- 9~11월 생산량, 전 지역 2005년보다 증가

9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남이 2005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1,133톤이었으며, 전남은 8.2% 증가한 129톤이었다.

월별로는 경남의 출하량이 9월부터 꾸준히 증가한 반면 전남은 10월, 기타지역은 11월이 가장 많았다.

〈 지역별 참돔 생산량 현황 〉

(단위: 톤)

구분	2005년	2006년				2005년 동기 대비 (%)
	9~11월	9월	10월	11월	소계	
합계	1,239	347	444	521	1,312	5.9
전남	147	25	89	45	159	8.2
경남	1,090	322	355	456	1,133	3.9
기타	2	0	0	20	20	900.0

주 : 기타는 충남, 제주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가격동향

- 산지가격, 3/4분기 대비 하락

2006년 4/4분기의 참돔 산지가격은 지난 분기에 비해 하락하였다. 크기별로는 1kg 대형어 가격의 하락폭이 컸는데, 이는 이 기간내 같은 크기의 참돔 수입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0월의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의 참돔 가격은 1kg 당 8,500원에서 거래되었는데, 이후 겨울철 집중 출하로 계속 하락하여 12월에는 7,000원에 거래되었다.

〈 참돔의 산지별 가격동향 〉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 가격	3/4분기 대비(%)
서남해수 어류양식 수협	육지수협					
	750g	8,000	8,500	7,500	8,000	-4.8
	통영 지소					
	800g	8,000	7,000	6,500	7,333	-6.4
	1kg	8,500	8,000	7,000	7,833	-13.0
	여수본소(원/kg)	-	8,369	-	8,369	-11.0

주 : 1) 육지와 통영은 크기별 가격

2) 여수가격은 kg당 평균가격, 10월과 12월에 참돔 위관실적이 없었음
자료 : 각 수협

농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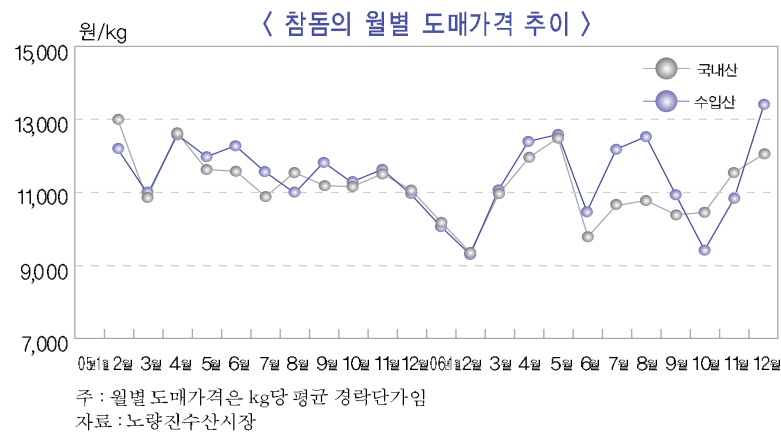
06

● 도매가격, 2005년
동기 대비 26.5%
상승

노량진수산물시장의 4/4분기 양식산 참돔 도매가격은 3/4분기에 비해 21.2% 상승한 kg당 13,060원이었는데, 이는 2005년 동기보다 26.5% 높은 가격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겨울철 수요 증가와 조류독감 발생으로 활어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편 4/4분기의 수입산 참돔 도매가격은 지난 분기 대비 8.0% 상승한 11,323원이었는데, 이 가격은 2005년 동기에 비해서도 1.2% 높은 가격이다.

● 소비자가격, 3/4분기
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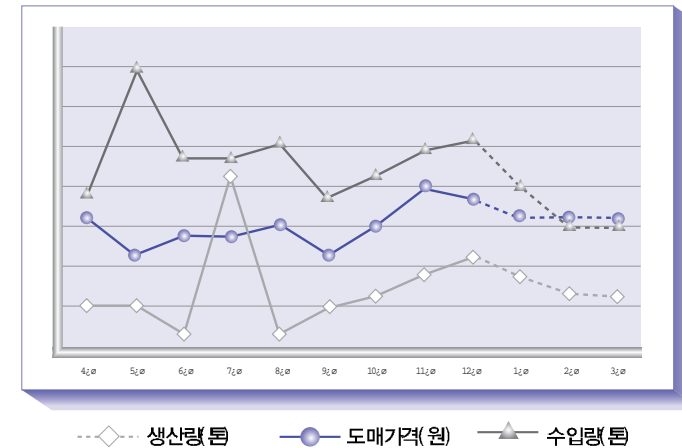
바다마트의 4/4분기 참돔 소비자가격은 횡감용 1kg 기준 32,442원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1.4% 상승하였다.

대형소매점 가격은 34,266원으로 3/4분기에 비해 3.8% 상승하였는데, 월별로는 11월까지 34,800원을 유지하였다가 12월 33,200원으로 다소 하락하였다.

〈 참돔의 월별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바다마트 ¹⁾	31,924	33,692	31,711	32,442	1.4
대형소매점 ²⁾	34,800	34,800	33,200	34,266	3.8

주 : 1) 수협중앙회 참돔본점의 활동 평균가격(부속 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
2) 대형 소매점의 월별 평균 소비자가격



수급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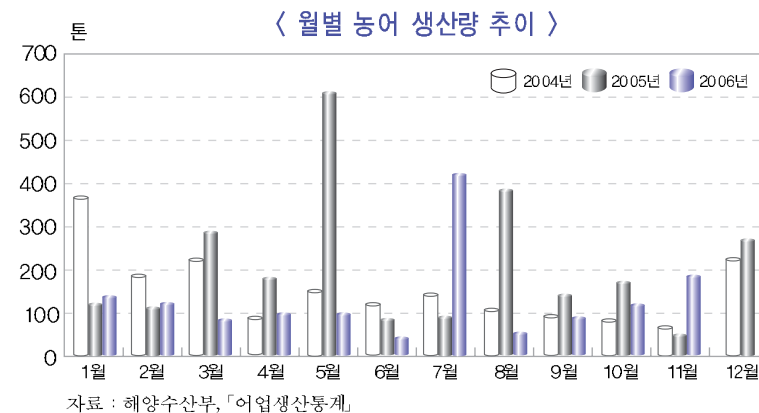
- 농어 생산량은 2002년 이후 크게 늘어나 연간 2,000~2,700톤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는 생산이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이후 다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세는 2007년 1/4분기 들어서도 지속될 것이나 월별 생산량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06년 4/4분기 농어 도매가격은 Kg당 평균 11,000원 이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11월에는 12,000원을 상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 지속적인 활어수입 증가가 예상되므로 가격은 약보합세를 보여 Kg당 10,000원을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동향

- 11월까지의 생산량, 2005년보다 38.9% 감소

2006년 11월까지 농어의 생산량은 2005년 동 기간에 비해 38.9% 감소한 1,421톤이었다. 이는 2006년에 해황 여건이 다소 좋지 않아 2005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성상태가 나빴기 때문이며 이러한 영향은 8월까지 지속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생산량은 2005년 동기간보다 6.8% 증가한 394톤을 기록하였으며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9~11월 생산량, 전 지역 2005년보다 증가

9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별 생산량을 살펴보면 경남이 2005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195톤이었으며, 기타지역은 9.9% 증가한 199톤이었다.

월별로는 경남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한 반면, 기타지역은 10월이 가장 많았다.

〈 지역별 농어 생산량 현황 〉

구분	2005년	2006년				2005년 동기 대비(%)
	9~11월	9월	10월	11월	소계	
합계	369	89	121	184	394	6.8
경남	188	64	25	106	195	3.7
기타	181	25	96	78	199	9.9

주 : 기타는 충남, 전북, 경북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가격동향

- 4/4분기 산지가격, 상승세 유지

2006년 4/4분기의 농어 산지가격은 분기 내내 계속 상승하였지만, 3/4분기에 비해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1월에 kg당 9,500원이었던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통영지소의 위판가격은 12월에 10,000원으로 전월 대비 5.3% 상승하였는데, 이는 연말 들어 수요는 증가한 반면 공급 물량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이다.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 여수본소의 위판가격은 3개월 동안 소폭 상승세를 유지하여 12월에 kg당 10,602원에 가격이 형성되었고, 하동수협은 10월과 11월에 9,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 농어의 산지별 가격동향 〉

(단위 :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서남해수 어류양식 수협	통영지소	9,500	9,500	10,000	9,667	-4.9
	여수본소	10,195	10,361	10,602	10,386	-2.8
하동수협		9,000	9,100	-	9,050	-2.0

주 : 통영과 하동은 1kg 크기 가격, 여수는 kg당 평균가격
자료 : 각 수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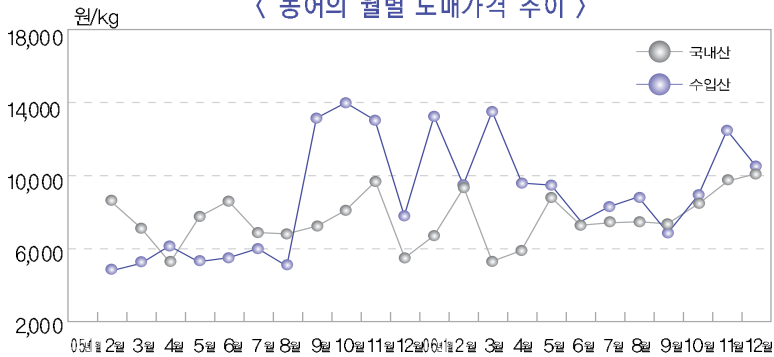
● 4/4분기 도매가격,
2005년 동기 대비
9.1% 상승

노량진수산시장의 4/4분기 농어 도매가격은 3/4분기에 비해 42.2% 상승한 11,253원이었는데, 이는 2005년 동기에 비해서도 9.1% 높은 가격이다.

월별로는 9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여 11월에 12,187원에 거래되었지만, 12월은 다소 하락한 10,883원에 거래되었다.

한편 4/4분기 수입산 농어의 도매가격은 3/4분기 대비 24.8% 상승한 9,360원이었는데, 이 가격은 2005년 동기에 비해서도 46.3% 높은 가격이다.

〈 농어의 월별 도매가격 추이 〉



주 : 월별 도매가격은 kg당 평균 경락단가임
자료 : 노량진수산시장

● 소비자가격, 3/4분기
대비 하락

바다마트의 4/4분기 농어 소비자가격은 횡김용 1kg 기준으로 31,999원에 거래되었는데, 이는 3/4분기에 비해 1.4% 하락한 가격이다.

대형 소매점의 농어 소비자가격은 3/4분기보다 6.5% 하락한 29,360원에 거래되었다.

〈 월별 농어 소비자가격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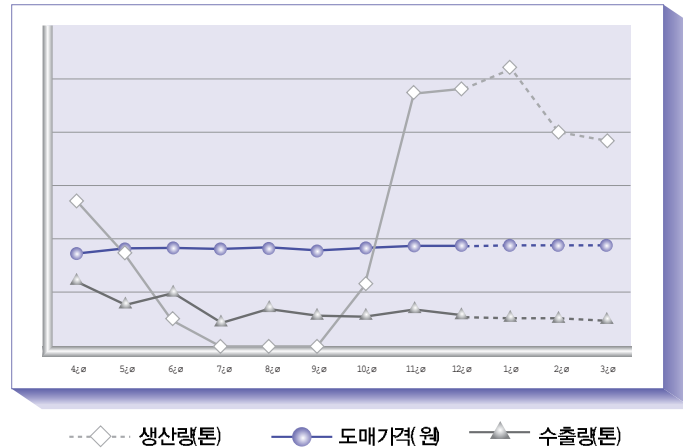
(단위 :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바다마트 ¹⁾	32,288	32,038	31,670	31,999	-1.4
대형소매점 ²⁾	29,360	29,360	29,360	29,360	-6.5

주 : 1) 수협중앙회 잠실본점의 활동 평균가격(부속 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가격)
2) 대형 소매점의 월별 평균 소비자가격

07

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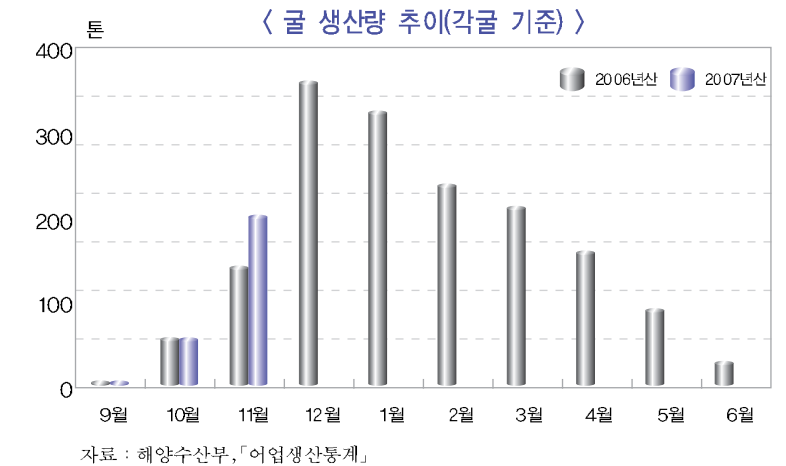
수급전망

- 2007년산 굴 양성상태는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1월까지의 생산은 2006년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2월 출하량이 크게 줄어 11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어업인들이 출하를 억제한 데 주 원인이 있는 것으로서 1월 이후는 생산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굴 도매가격은 11월 이후 출하 억제 등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다소 상승경향을 보이고 있다. 10~11월 김장철 수요와 맞물려 상승경향을 보였으며 12월 이후에도 2005년에 비해 강세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동향

- 9~11월 굴 생산량, 2005년 동기 대비 26.0% 증가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굴 생산량은 58,025톤으로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6.0%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10월에 11,305톤이 생산되어 2005년 10월보다 0.6% 감소하였으나, 11월에는 46,527톤이 생산되어 35.7% 증가하였다. 2005년 동기간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2006년산에 비해 2007년산의 시설량이 증가한 데다 태풍으로 인한 시설 피해가 예년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 9~11월 지역별 굴 생산량, 모든 지역에서 증가

9~11월의 지역별 굴 생산량은 모든 지역에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남이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9.6% 증가한 49,907톤을 기록하며 전국 굴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였다. 한편 투석식 굴이 주로 생산되는 충남의 경우도 2005년 대비 19.2%가 증가한 1,981톤을 기록했다.

〈 지역별 굴 생산량 동향(각굴 기준) 〉

(단위 : 톤)

구분	2005년 9~11월	2006년				2005년 동기 대비(%)
		9월	10월	11월	계	
전국	46,050	193	11,305	46,527	58,025	26.0
충남	1,662	17	366	1,598	1,981	19.2
전남	5,025	0	55	5,072	5,127	2.0
경남	38,511	170	10,733	39,004	49,907	29.6
기타	852	6	151	853	1,010	18.5

주 : 기타는 부산, 인천, 강원 지역임
자료 : 해양수산부, 「어업생산통계」

● 4/4분기 수하식
굴 위판량, 2005년
동기 대비 6.0% 감소

4/4분기 수하식 굴의 위판량은 2005년 동기에 비해 6.0% 감소한 6,394톤으로 나타났다. 특히 12월 위판물량은 전월에 비해 22.9%, 2005년 동월에 비해 17.5%나 감소하였는데, 이는 김장철이 지나면서 굴 가격이 급락함에 따라 수협과 어업인들이 굴 박신시간을 줄이고 지역별 출하·휴무제를 시행하여 위판물량을 조절했기 때문이다.

〈 수하식 굴 위판량 동향(알굴 기준) 〉

(단위 : 톤)

구분	2005년 4/4분기	2006년				2005년 동기 대비(%)
		10월	11월	12월	계	
계	6,798	782	3,168	2,443	6,394	-6.0
굴수협	5,663	683	2,680	2,119	5,481	-3.2
고성군수협	903	99	423	264	787	-12.9
사천수협	72	-	28	16	44	-39.8
여수수협	160	-	38	45	82	-48.5

자료 : 각 수협

● 4/4분기 굴 양성상태,
주산지인 통영·고성은
양호했으나 그 외
지역은 대체로 부진

4/4분기 굴의 양성상태에 대한 지역자문위원 조사결과, 주산지인 통영과 고성은 양호했으나 기타 산지인 여수, 거제, 남해 등지에서는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영과 고성에서는 해황여건이 좋아 굴의 성장이나 비만상태가 평년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여수에서는 대량 폐사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작황이 매우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 진해만과 남해 강진만에서는 폐사가 발생한 후 예년 수준을 회복 중에 있으나 거제만에서는 폐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폐사와 작황 부진의 주된 원인은 수온이 평년보다 2~3℃ 높았던 데다 오랜 가뭄으로 영양염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충남은 해황여건이 좋아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06년 4/4분기 양성상태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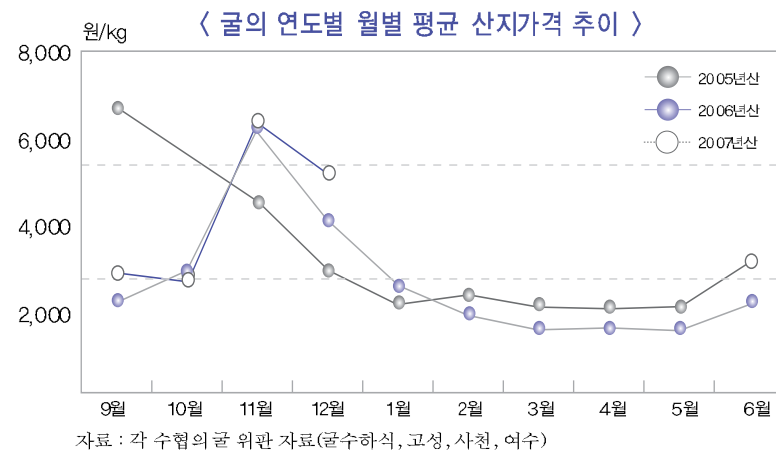
지역		양성상태
통영	한산·인평·도산 지도·원문만	해황여건이 좋아 성장 및 비만상태 양호
고성	자란만	
남해	강진만	대량폐사(평균 69%) 후 11월 들어 양호
거제	거제만	소량씩 지속적인 폐사 발생, 작황 부진
	진해만	일부 폐사 후 회복 중, 작황 평년 수준
여수	가막만	대량 폐사(67% 이상), 작황 매우 부진
	장수만	폐사(40% 이상), 작황 부진
	여수해만	대량 폐사(90% 이상), 생산성 없음
고흥	나로도해역	대량 폐사, 작황 부진
서산·태안 등	가로림·천수만	해황여건이 좋아 평년 수준 유지

가격 동향

● 산지가격, 2005년 4/4분기 대비 상승

2006년 4/4분기의 굴 산지 위판가격은 2005년 동기 대비 9.0% 상승한 kg당 6,104원이었다. 이는 계절적인 수요증가와 함께 식품안전성 요인으로 인해 굴의 소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월별로 보면 11월 산지가격은 kg당 6,845원으로 2005년 동월 대비 4.0% 상승하였으며, 12월 산지가격도 2005년 동월 대비 14.0% 상승한 kg당 5,827원이다.



● 도매가격, 3/4분기 대비 상승

4/4분기 생굴 도매가격은 모든 시장에서 3/4분기 대비 상승하였다. 시장별로는 농수산물유통공사와 노량진수산시장이 3/4분기 대비 각각 16.2%, 26.5% 상승한 kg당 평균 8,379원, 7,063원이었다. 또한 서울시농수산물공사의 도매가격도 3/4분기 대비 30.0% 이상 상승하면서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 생굴의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2005년 동기 대비(%)
농수산물유통공사(생굴)	7,289	8,910	8,937	8,379	16.2	2.2
노량진수산시장	5,175	8,065	6,135	7,063	26.5	14.9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상	8,033	10,829	8,327	9,063	37.7	-6.1
대형농수산물도매시장 중	5,988	8,856	7,183	7,342	49.0	0.3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조사가격, 노량진수산시장은 평균 경락가격(12월 가격은 잠정치)

● 소매가격, 3/4분기 대비 상승

농수산물유통공사의 4/4분기 생굴(상품) 소매가격도 3/4분기 및 2005년 동기 대비 각각 20.7%, 4.5% 상승한 kg당 평균 11,455원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대전이 3/4분기 대비 각각 30.5%, 24.2% 상승한 kg당 평균 11,923원, 10,400원이었다. 한편 부산은 kg당 11,000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보합세를 보였다.

< 생굴(상품)의 소매가격 동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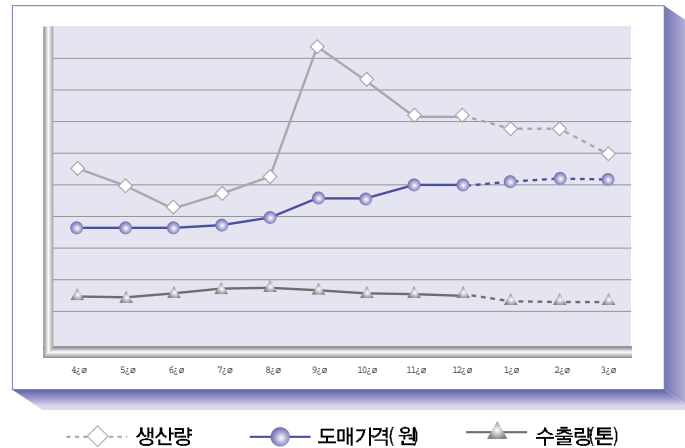
(단위 :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가격	3/4분기 대비(%)	2005년 동기 대비(%)
전국	10,321	11,436	12,608	11,455	20.7	4.5
서울	10,544	11,778	13,447	11,923	30.5	4.0
부산	11,000	11,000	11,000	11,000	0.0	-4.1
대전	8,947	10,599	11,655	10,400	24.2	-4.0
광주	10,000	9,962	12,333	10,765	-	7.0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조사가격

08

전 복



수급전망

- 2006년 9월 이후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 9~10월은 월 400톤 이상이 출하되었으며 11~12월도 360톤 이상 출하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3~4년 전부터 크게 늘어난 전복양식 시설에서의 출하물량이 쏟아지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2007년 1월 이후 이러한 생산량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4/4분기의 전복 산지가격은 3/4분기에 비해 1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매가격도 상승하였는데 2007년 1/4분기는 2006년 4/4분기에 비해 소비가 늘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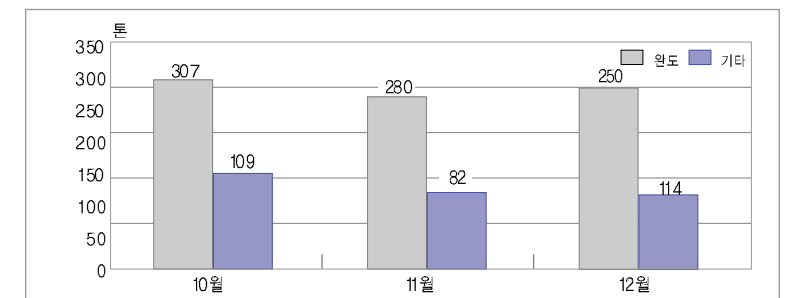
생산동향

- 4/4분기 출하량, 1,142톤으로 추정

2006년 10~12월까지 전국 전복 출하량은 1,142톤으로 추정된다. 이 기간 동안 완도의 출하량은 837톤으로 전체에서 73.3%였고, 기타지역은 305톤을 출하하였다.

완도지역은 11월에 비해 12월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나, 기타지역은 이 기간에 출하량이 늘어났다. 이는 미역작황 부진으로 완도지역에서 출하를 자제함에 따라 산지유통업자들이 진도 등 기타지역에서 물량을 확보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별·지역별 전복 출하 동향 〉



*당 센터 추정치

4/4분기 동안 크기별로는 주 출하규격인 kg당 9~11마리와 12~15마리가 각각 381톤, 384톤 출하되었다.

10월부터 kg당 15마리 이하의 큰 크기의 전복은 출하량이 감소하는 반면, kg당 16마리 이상의 작은 크기의 출하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추석이후 선물용인 큰 크기의 수요는 감소하였으나, 작은 크기의 전복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 월별·크기별 전복 출하 동향 〉

(단위: 톤)

구분	10월	11월	12월	소계
합 계	416	362	364	1,142
8마리 이하	41	36	22	99
9~11마리	156	114	111	381
12~15마리	141	124	119	384
16~20마리	57	72	80	209
21마리 이상	21	16	32	69

*당 센터 추정치

● 4/4분기 치패
입식량, 약 1억
3,100만 마리

하반기 전복의 주 입식시기인 10~12월의 치패 입식량은 약 1억 3,100만 마리로 추정된다. 이중에서 완도가 약 1억 5백만 마리로 전체에서 80.2%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약 2천 6백만 마리가 입식되었다.

10월까지 주 종묘산지인 진도에서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전복 종묘의 성장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11월부터 수온이 내려가면서 성장상태가 호전되어 전복 치패 공급이 원활해졌다.

이에 따라 전복 치패공급 상황은 좋아졌으나, 12월까지 예년에 비해 전복 먹이인 미역작황이 좋지 않아서 2007년 봄으로 치패입식을 미룬 양식어가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월별·지역별 전복 입식 동향 〉

(단위 : 만 마리)

구분	10월	11월	12월	합계
합 계	1,076	10,298	1,725	13,099
완 도	758	9,093	659	10,510
기 타	318	1,205	1,066	2,589

*당 센터 추정치

● 12월말
전복양성물량,
약 4억 5천만 마리

12월말 기준으로 전복 총 양성물량은 약 4억 5천만 마리로 추정되었다. 지역별로는 완도가 약 3억 3천만 마리로써 전체 물량에서 약 74%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약 1억 2천만 마리가 양성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12월말 크기별 양성물량 〉

(단위 : 만 마리)

구분	완도	기타	전국
합 계	33,354	11,440	44,794
8마리 이하	715	317	1,032
9~11마리	1,532	944	2,476
12~15마리	2,926	1,368	4,294
16~20마리	6,170	1,922	8,092
21마리 이상	22,011	6,889	28,900

*당 센터 추정치

● 미역작황, 예년에
비해 부진

여름철 태풍으로 미역이 초기에 많이 유실되었고, 12월까지 지속된 고수온 등의 영향으로 미역작황이 예년에 비해 부진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12월까지 전복 먹이공급에 차질을 빚었고, 이 때문에 양식어가들은 마른미역 혹은 간미역으로 먹이를 대체하였다.

가격 동향

● 4/4분기 산지가격,
2005년 동기 대비
상승

4/4분기 전복 산지가격은 모든 크기에서 3/4분기뿐만 아니라 2005년 동기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1월에 들어 대부분의 크기에서 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12월에는 kg당 15마리 이상의 작은 크기 가격은 전월에 비해 상승한 반면 8~10마리의 중·대형 크기 가격은 하락하였다.

〈 전복의 산지별 가격동향 〉

(단위 :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평균 가격	3/4분기 대비(%)	2005년 동기 대비(%)
완도 수협	노화 지점	8마리	53,750	56,600	51,667	54,006	14.9	14.9
		10마리	46,000	49,600	46,000	47,200	12.8	15.1
		12마리	38,000	40,200	39,333	39,178	9.2	8.8
		15마리	31,250	33,000	34,333	32,861	10.5	9.5
		20마리	24,000	24,800	26,667	25,156	6.7	0.6
	본점	8마리	50,011	56,600	53,333	54,982	17.2	17.0
		10마리	47,394	50,000	48,000	48,465	14.5	19.2
		12마리	39,658	40,000	40,000	39,886	13.5	10.8
		15마리	31,734	33,000	34,667	33,133	9.4	-
		20마리	24,953	25,000	26,333	25,429	-	-
흑산도수협	8마리	51,750	51,600	49,333	50,894	9.1	4.6	
	10마리	43,750	45,400	43,333	44,461	9.8	11.2	
	12마리	35,500	38,200	38,667	37,456	9.1	24.9	
	15마리	29,500	31,800	32,667	31,322	11.9	-	
	20마리	21,000	22,000	23,667	22,222	1.0	-	

주 : 10, 11월 가격은 확정치,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각 수협 직관장의 주별 대표가격의 단순 평균임

● 4/4분기 도매가격,
12마리 이상 크기
상승세

4/4분기의 전복 도매가격은 10마리 이하에서는 보합세를 보인 반면, 12마리 이상에서는 상승세를 보였다.

11월에는 인천광역시도매시장가격이 kg당 8~10마리 위주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며, 하남광역시도매시장은 가격 변동이 없었다.

12월에는 10마리 이하 큰 크기의 전복가격은 전월과 같은 가격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2마리 이상 중·소형 크기의 가격은 모두 상승하였는데, 특히 구이용으로 소비되는 kg당 15마리 크기의 가격 상승폭이 컸다.

〈 전복의 월별 도매가격 동향 〉

(단위 : 원/kg)

구분		10 월	11월	12 월		평균가격
					전월 대비 (%)	
인천촬영 도매시장	8마리	56,000	60,000	60,000	0.0	58,667
	10 마리	48,000	50,000	50,000	0.0	49,333
	12마리	40,000	40,000	42,000	5.0	40,667
	15마리	36,000	36,000	39,000	8.3	37,000
	20마리	28,000	30,000	33,000	10.0	30,333
하남촬영 도매시장	8마리	55,000	55,000	55,000	0.0	55,000
	10 마리	46,000	46,000	46,000	0.0	46,000
	12마리	40,000	40,000	43,000	7.5	41,000
	15마리	34,000	34,000	40,000	17.6	36,000
	20마리	28,000	28,000	33,000	17.9	29,667

주 : 도매가격과 산지가격의 차이는 감모율로 인한 것임
자료 : 각 시장

● 바다마트 · 대형
소매점 소비자가격,
4/4분기 보합세

바다마트와 대형소매점의 4/4분기 전복 소비자가격은 보합세를 보였다. 바다마트는 10월, 11월에 kg당 94,000원대를 유지하였으나, 12월에는 다소 하락하여 약보합세를 보였다.

10월에 90,015원이었던 대형소매점 가격은 11월에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으나, 12월은 다시 반등하여 83,130원에 거래되었다.

한편 피쉬세일 가격은 10월, 11월에 변동이 없었으나, 12월

은 전복 할인판매 행사로 전월 대비 17.6% 하락한 61,000원에 거래되었다.

〈 전복의 월별 소비자가격 동향 〉

(단위 : 원/kg)

구분	10 월	11월	12월		평균가격
			전월 대비 (%)		
바다마트 ¹⁾	94,767	94,808	93,929	-0.9	94,501
대형소매점 ²⁾	80,015	78,680	83,130	5.7	80,608
피쉬세일 ³⁾	74,000	74,000	61,000	-17.6	69,667

주 : 1)수협중앙회잠실 본점의 전복 평균 가격(부속 일반음식점으로 부가세 포함)
2), 3) 대형소매점과 피쉬세일 가격은 kg당 10마리 크기의 월별 평균 소비자가격



KOREA MARITIME INSTITUTE
FISHERIES OUTLOOK CENTER

Exports &
Imports

Part III

수출입동향

해조류	58
활어	61
패류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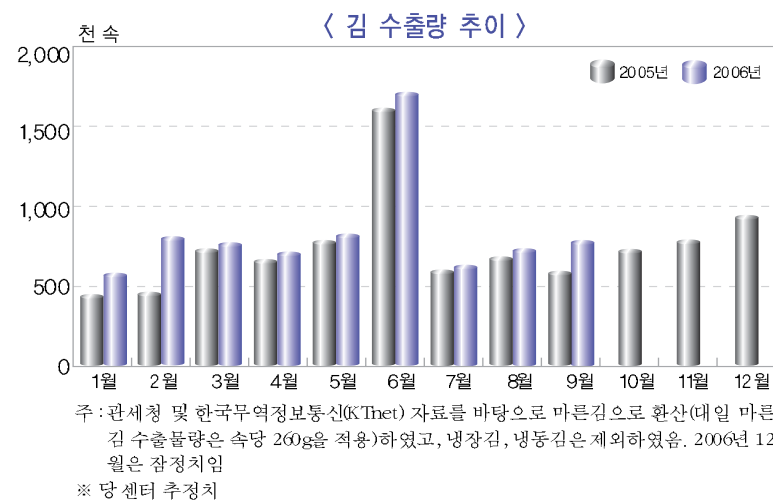
KMI

해조류 수출입동향

4/4분기 김 수출량, 2005년 동기 대비 21.1% 증가

2006년 4/4분기의 김 수출량은 283만 속으로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1.1% 증가하였다. 월별로는 12월에 130만 속으로 가장 많았고, 10월과 11월에 각각 61만 속과 92만 속이 수출되었다. 특히 12월에 수출량이 증가한 것은 2006년 대일 IQ 물량 중 12월에 만료되는 선착순 할당량을 소진하기 위해 마른김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연간 수출량은 2002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1,017만 속으로 2005년 878만 속에 비해 15.9%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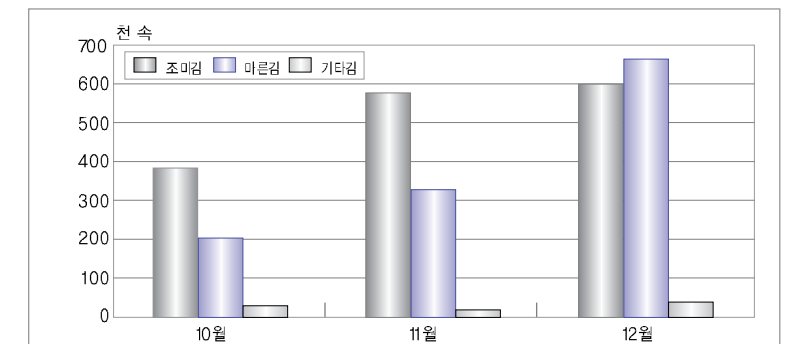
4/4분기 제품별 수출량, 조미김이 54.8% 차지

2006년 4/4분기 제품별 수출량은 조미김이 155만 속으로 전체 김 수출량의 54.8%를 차지하였으며, 2005년 동기간에 비해 147.9%가 증가하였다. 마른김과 기타김은 각각 120만 속과 8만 속이었다.

한편 2006년 제품별 수출량은 조미김이 543만 속, 마른김이 438만 속, 기타김이 36만 속이 수출되었다. 이는 2005년과 비교해 볼 때 조미김과 기타김은 각각 2.2%, 16.3% 감소하였고,

마른김은 56.4% 증가한 것이다. 특히 중국과 대만으로의 마른 김 수출량이 2005년에 비해 2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는데, 중국은 2006년산 김 생산량 부진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였고, 대만은 한국산 김의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조미김의 원료인 마른김에 대한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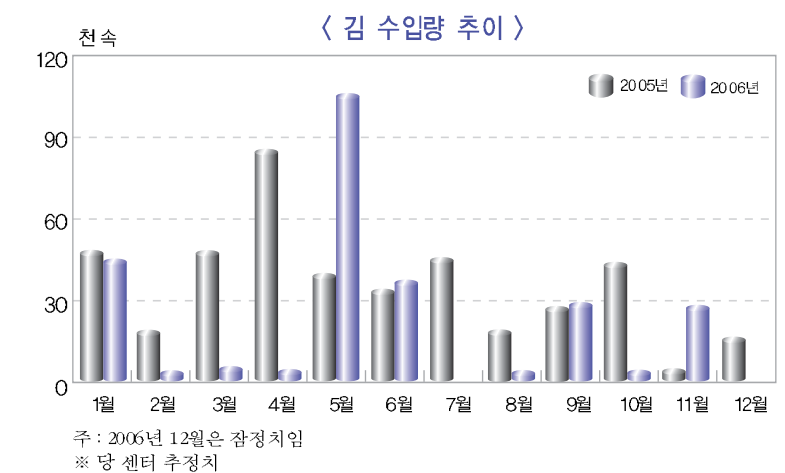
〈 제품별 김 수출량 추이 〉



주: 2006년 12월은 잠정치임
※ 당 센터 추정치

4/4분기 김 수입량, 2005년 동기 대비 46.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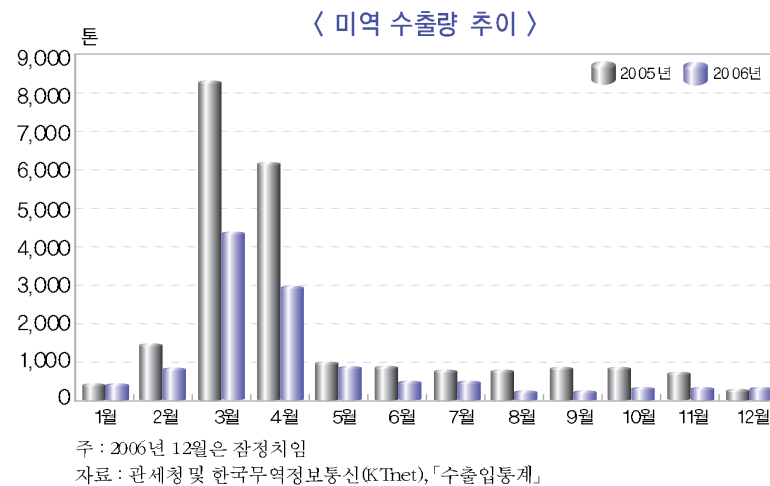
2006년 4/4분기의 김 수입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46.4% 감소한 3만 속이었다. 월별로는 10월에 2천 속, 11월에 2만 8천 속이 수입되었다. 한편 동기간에 수입된 중국산 김은 8천 속에 불과하였다.



● 4/4분기 미역 수출량,
2005년 동기 대비
51.2% 감소

2006년 4/4분기 미역 수출량은 845톤으로 2005년 동기간에 비해 51.2% 감소하였다. 제품별로는 마른미역이 332톤으로 2005년 동기간에 비해 1.7% 감소하는데 그쳤으나 간미역은 46.5% 감소한 492톤, 냉동미역은 95.3% 감소한 21톤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381톤, 미국이 299톤, 캐나다가 35톤이었으며, 중국으로는 수출실적이 없었다.

한편 2006년 총 수출량은 11,441톤으로 2005년에 비해 46.7% 감소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일본 45.7%, 중국 59.8%, 미국 20.6%, 캐나다 10.7% 등 주요 수출국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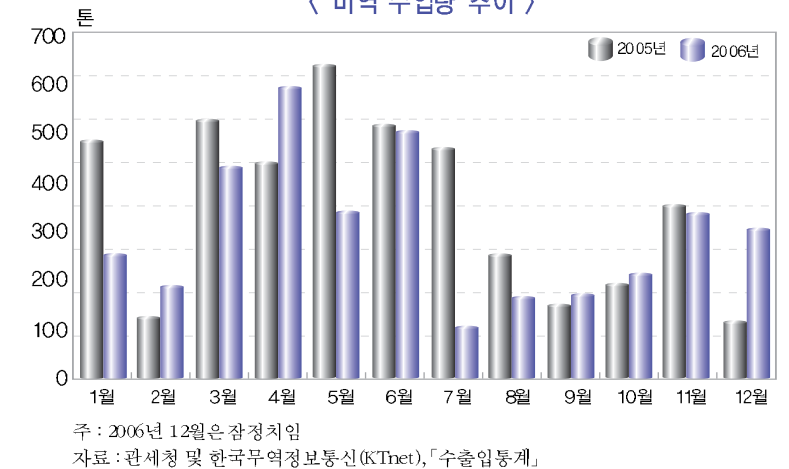


● 4/4분기 미역 수입량,
2005년 동기 대비
31.3% 증가

2006년 4/4분기의 미역 수입량은 970톤으로 2005년 동기간에 비해 31.3% 증가하였다. 제품별로는 간미역이 774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79.7%를 차지하였고, 마른미역이 107톤, 냉동미역이 90톤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82.5%인 800톤, 일본이 17.5%인 170톤이었다.

한편 2006년 총 수입량은 3,807톤으로 2005년에 비해 9.8% 감소하였다.

〈 미역 수입량 추이 〉



활어 수출입동향

● 4/4분기 주요 활어
수출량, 2005년
동기 대비 20.6%
감소

2006년 4/4분기 주요 활어의 수출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0.6% 감소한 1,808톤이었다. 이 기간 동안 활넙치는 20.3%, 활붕장어는 21.3% 감소하여 비슷한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활어의 2006년 연간 수출량은 2005년에 비해 36.5% 감소한 5,939톤을 기록했으며, 특히 활넙치의 수출량 감소폭은 32.2%를 기록했다.

〈 주요 활어 수출량 추이 〉

(단위: 톤)

구분	2005년		2006년					2005년 대비(%)	
	4/4분기	누계	4/4분기				누계	분기	누계
			10월	11월	12월	합계			
계	2,278	9,352	664	524	620	1,808	5,939	-20.6	-36.5
넙치류	1,572	5,574	498	348	407	1,253	3,778	-20.3	-32.2
붕장어	705	3,778	166	176	213	555	2,161	-21.3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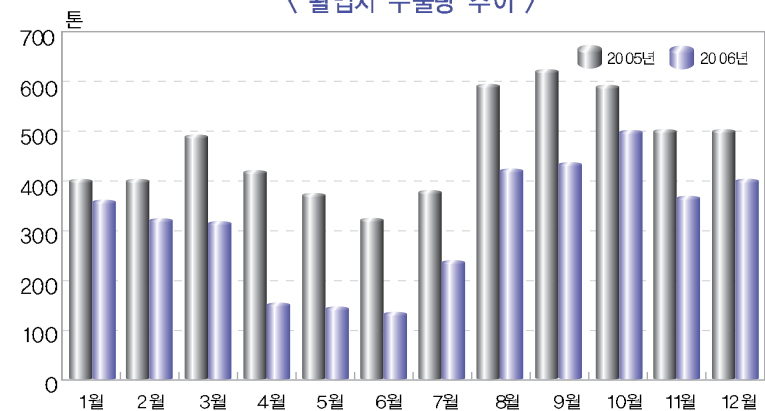
주: 넙치류는 가자미, 서대를 포함(현재 넙치만 수출되고 있음), 2006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het), 「수출입통계」

● 4/4분기 활넙치 수출량, 2005년 동기 대비 20.3% 감소

2006년 4/4분기 활넙치 수출량은 1,253톤으로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0.3% 감소하였다. 특히 11월의 수출량이 348톤으로 분기 중 가장 적었는데, 이는 일본내 넙치 생산자들이 치어 입식을 위해 출하량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4/4분기 중 미국으로 매월 4톤 이상 수출되었는데, 향후 대량수송이 가능해질 경우 대미 수출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2006년 활넙치 수출량은 2005년에 비해 32.2% 감소한 3,778톤을 기록했다.

〈 활넙치 수출량 추이 〉



주: 넙치류는 가자미, 서대를 포함(현재 넙치만 수출되고 있음), 2006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het), 「수출입통계」

● 4/4분기 주요 활어 수입량, 2005년 동기 대비 94.5% 증가

2006년 4/4분기 주요 활어의 수입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94.5%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민어, 농어, 조피볼락의 수입량이 2005년 동기간에 비해 매우 크게 증가했는데, 2005년의 경우 말라카이트그린 과용으로 수입량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한편 주요 활어의 2006년 연간 수입량은 넙치류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증가하여 2005년에 비해 28.3%가 증가한 19,590톤을 기록했다.

〈 주요 활어 수입량 추이 〉

(단위: 톤)

구분	2005년		2006년				2005년 대비(%)		
	4/4분기	누계	4/4분기				누계	분기	누계
			10월	11월	12월	합계			
계	2,404	15,268	1,404	1,502	1,768	4,674	19,590	94.5	28.3
돔류	927	4,204	404	451	396	1,252	6,870	35.1	63.4
농어	406	3,817	430	489	528	1,446	5,478	256.5	43.5
민어	133	3,296	254	144	384	782	3,651	487.5	10.8
노래미	769	2,357	212	279	296	787	2,767	2.3	17.4
넙치류	49	841	3	0	0	3	23	-93.9	-97.3
조피볼락	120	753	101	139	164	404	801	237.2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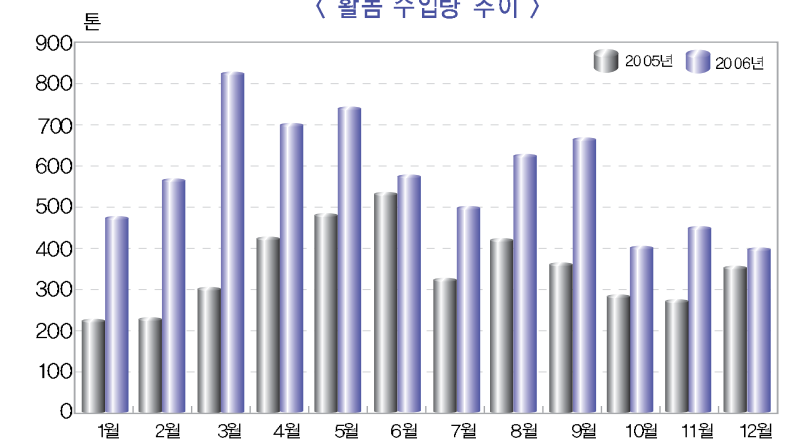
주: 넙치류는 주로 가자미이며, 민어는 주로 홍민어임, 2006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het), 「수출입통계」

● 4/4분기 돔류 수입량, 2005년 동기 대비 35.1% 증가

2006년 4/4분기 돔류의 수입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35.1% 증가한 1,252톤을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산 참돔이 59.6%인 747톤, 중국산이 40.4%인 505톤이었다.

한편 돔류의 2006년 수입량은 6,870톤으로 활어품목 중 가장 많은 양이 수입되었으며, 이 중 일본산은 2005년보다 54.9% 증가한 4,426톤이었다.

〈 활돔류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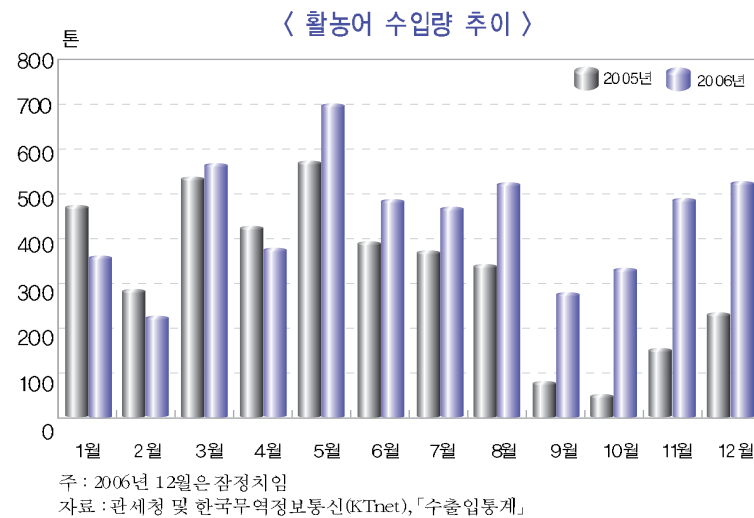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het), 2006년 9월은 잠정치

● 4/4분기 활농어 수입량, 2005년 동기 대비 256.5% 증가

2006년 4/4분기 활농어의 수입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56.5%나 증가한 1,446톤이었다. 이는 2005년 말라카이트그린 파동으로 2005년 4/4분기동안 수입이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2004년 동기간에 비교해 볼 경우에는 6.2% 증가하는데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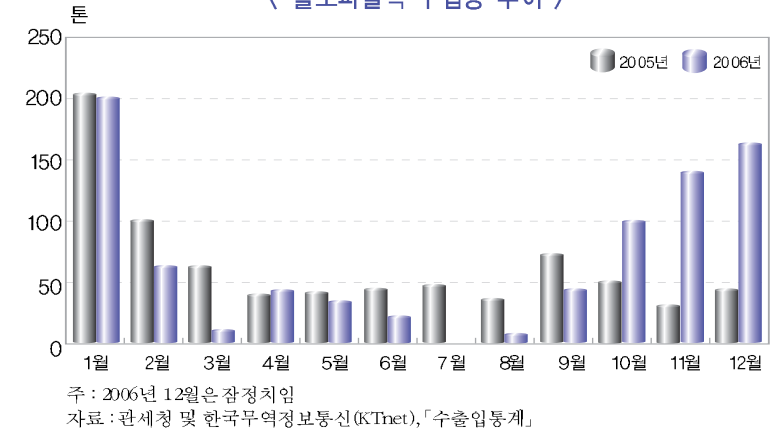
한편 2006년 농어의 수입량은 5,478톤이었는데, 2005년에 비해서는 43.5% 증가하였으나 2004년에 비해서는 27.2% 감소하였다.



● 4/4분기 활조피볼락 수입량, 2005년 동기 대비 237.2% 증가

2006년 4/4분기 조피볼락의 수입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237.2% 증가한 404톤을 기록했는데, 2004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35.0% 증가한 것이다. 이는 한국산에 비해 중국산의 가격이 크게 낮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조피볼락의 수입량은 2005년에 비해 6.4%, 2004년에 비해 12.7% 증가한 801톤을 기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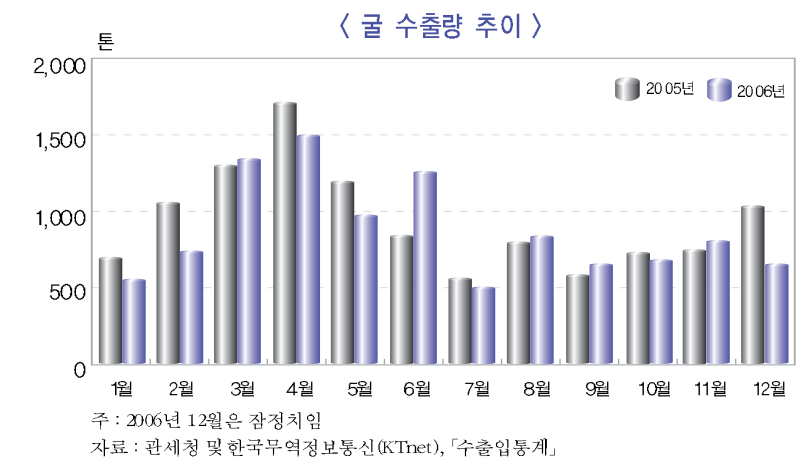
〈 활조피볼락 수입량 추이 〉



패류 수출입동향

● 4/4분기 굴 수출량, 2005년 동기 대비 16.2% 감소

2006년 4/4분기 굴 수출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16.2% 감소한 2,145톤을 기록하였다. 월별로는 10월 737톤, 11월 835톤, 12월 573톤을 기록했다. 특히 12월 수출량이 2005년 동월에 비해 43.4%나 감소했는데, 이는 12월 중순 미국 식품의약품 안전청(FDA)이 자국에 수입된 한국산 냉동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한편 2006년 우리나라의 굴 수출량은 2005년에 비해 6.3% 감소한 10,591톤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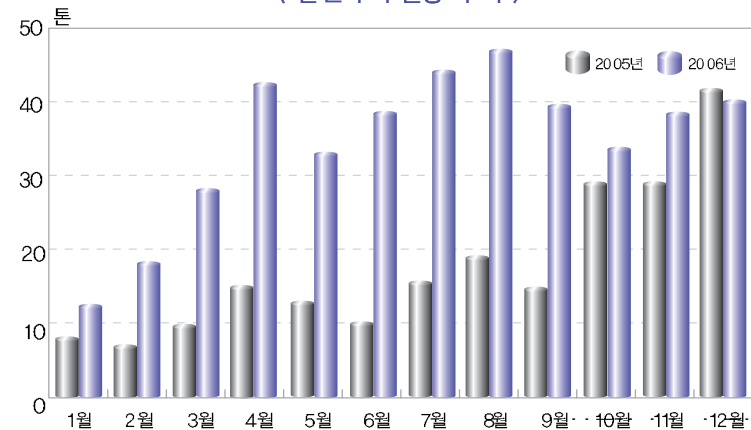


● 4/4분기 활전복
수출량, 2005년 동기
대비 14.5% 증가

2006년 4/4분기 활전복 수출량은 2005년 동기간에 비해 14.5% 증가한 112톤이었으며,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다.

한편 2006년 활전복 수출량은 411톤으로 2005년에 비해 95.5%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증가추세는 2005년 10월부터 비롯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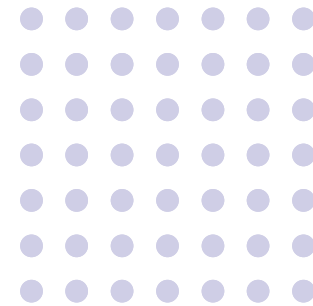
〈 활전복 수출량 추이 〉



주 : 2006년 12월은 잠정치임

자료 : 관세청 및 한국무역정보통신(KThet), 「수출입통계」

Market &
Information



KOREA MARITIME INSTITUTE
FISHERIES OUTLOOK CENTER

Part IV

시장동향

김	66
활어	70
전복	74

김 시장동향

● 위탁급식으로 소비되는 김, 전체 김 생산량의 4.1% 차지

단체급식업체의 김 소비동향을 조사한 결과, 위탁급식으로 연간 소비되는 김은 432만 속(마른김 260g 환산)으로 김 생산량의 약 4.1%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최근 웰빙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식에 해조류를 반찬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한편 조사대상 위탁급식업체의 김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조미김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식단구성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대상 위탁급식업체의 김 소비 현황 〉

구분	A사	B사	C사	D사
위탁급식 시작 시기	1994년	1996년	1987년	2000년
연간 김 사용량	48만 속	37만 속	45만 속	26만 속
주요 김 형태	도시락 김(8절 8매)	도시락 김(8절 8매)	전장김(50매 10매)	전장김(100매)
김 제품 종류별 구성비(%)	조미김(72), 마른김(18), 기타 ^{*)} (10)	조미김(100)	조미김(80), 마른김(19), 기타(1)	조미김(70), 기타(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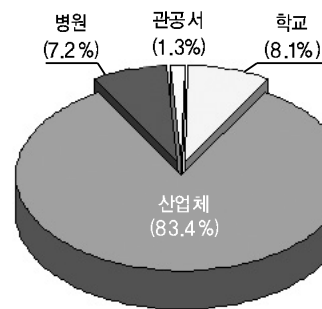
주 : 기타는 김가루와 김자반을 포함하고 있음

자료 : 주요 급식업체의 수산바이어 면담 및 전화조사(2006.10.19~23) 결과

● 위탁급식, 산업체가 80% 이상 차지

조사대상 위탁급식업체의 주요 급식처별로는 산업체가 조사대상의 전체 83.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가 8.1%, 병원이 7.2% 등의 순이었다. 특히 병원의 경우는 염분을 줄인 저염김을 별도로 주문 생산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탁급식처별 구성비 〉



주 : 산업체는 공장, 회사 등을 포함
자료 : 상동

● 위탁급식 사업장 1개소, 월 평균 김 소비량 60~70속 내외

위탁급식 사업장 1개소의 월평균 김 소비량은 60~70속 내외였으며, 단체급식에서 김이 제공되는 횟수는 학교급식의 월 2.2회보다 적은 월 1회 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휴가철인 7~8월에 비교적 김 소비량이 적고, 그 외에는 매월 소비량이 일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위탁급식 사업장 1개소별 월평균 김 소비 현황 〉

구분	A사	B사	C사	D사
급식 사업장수	550	500	580	320
월 평균 소비량(속)	73	62	64	68

자료 : 상동

● 김 산지 집산시장, 전체 김 생산량의 약 33% 거래

광주, 목포 김 산지 집산시장의 김 거래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주 매월동시장의 연간 거래 물량이 김 생산량의 21.5%인 약 2,400만 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목포 행복동시장은 약 1,300만 속인 11.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래형태를 보면 두 시장 모두 도매상 중심의 '주판식'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름에 미리 돈을 지불하고 나중에 김으로 돌려받는 선대금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 김 산지 집산시장의 거래 현황 〉

구분	광주 매월동시장	목포 행복동시장
김 거래량	약 2,400만 속	약 1,300만 속
비 중(%)	21.5	11.8
거래 형태	주판 이용한 경매	주판 이용한 경매, 구두경매
도매상	20명	40명
결제 방법	선대금(마른김 생산업체)	선대금(어민 및 마른김 생산업체)

주 : 전국의 대표적인 김 시장은 8개소이다. 산지집산시장으로는 목포 행복동, 광주 매월동시장 등이며, 소비지시장은 서울 가락, 서울 중부, 부산 부전, 부산 남포동, 대구 서문, 대전 중부시장 등이 있다.

* 2대 김 산지 집산시장 탐문조사(2006.11.15~17)결과

● 김 보관형태, 냉동보관 증가추세

김은 보관형태에 따라 냉동김과 화입김으로 나뉘는데, '부드러운 김'의 선호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냉동보관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냉동김은 할인판매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파래김과 재래김의 대부분이 냉동보관되는데, 이는 습기를 제거한 화입김보다 맛과 향을 그대로 유지시켜줌으로써 조미가공 시에 불륜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량으로 보관하는 화입김보다 소량 보관이 용이하여 수시판매가 가능하고 보관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김 보관 형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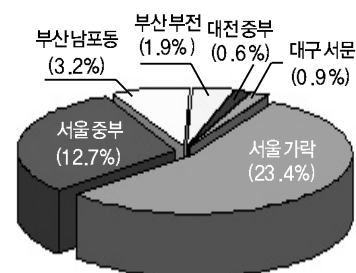
구분	냉동김	화입김
도입년도	2000년대	1950년대
특징	맛과 향 유지 단기보관비 저렴	색택 유지 장기보관이 용이
보관방법	-18℃ 이하 냉동보관	상온보관
주요 김 종류	재래김, 파래김, 돌김	김밥용김
보관비용	속당 50원 (한달, 한 박스당 기준)	속당 300~350원 (보관료 포함 가격)

자료 : 상동

● 서울지역 도매시장 김 거래량, 총 생산량 대비 36% 차지

전국 6대 김 소비지도시장의 김 거래동향을 조사한 결과, 전국 김 생산량의 약 42.6%인 약 4,300만 속이 이들 도매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별로 보면 서울 가락시장과 중부시장에서의 김 거래량이 전체 생산량의 3,640만 속으로 소비지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김 산지집산시장의 거래량과 비슷한 규모이다. 이 밖에도 부산남포동, 부전, 대구 서문시장 순이었다.

〈 6대 김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 현황 〉



* 6대 김 소비지도매시장 탐문조사
(2006.12.12~15)결과

● 소비지도매시장 김 수집경로, 직접 수집이 70% 차지

조사대상 소비지도시장별 김 수집경로를 보면, 전체 거래량의 약 70%인 2,896만 속이 산지 마른김 생산업체들로부터 직접 수집된 것이며, 나머지 30%인 1,411만 속이 광주, 목포 등의 산지집산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른김 생산업체들에게서 직접 수집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으며, 이중 일부 도매시장의 경우는 산지집산시장을 통한 수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김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현황 〉

(단위: 만 속, %)

구분	서울가락	서울중부	부산남포동	부산부전	대구서문	대전중부	합 계
직접 수집	1,652 (38.4)	896 (20.8)	228 (5.3)	113 (2.6)	6 (0.1)	0 (0.0)	2,896 (67.2)
산지집산시장 경유	708 (16.4)	384 (8.9)	98 (2.3)	76 (1.8)	57 (1.3)	88 (2.1)	1,411 (32.8)

자료 : 상동

● 김 소비지도매시장의 거래비율, 돌김과 재래김이 높아

6대 김 소비지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김을 종류별로 살펴보면 돌김이 28.2%인 1,216만 속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재래김이 27.5%, 파래김 24.6% 등의 순이었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두껍고 거친 돌김보다는 얇고 부드러운 김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재래김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 소비지도매시장의 김 종류별 거래 비율 〉

구분	돌김	재래김	파래김	김밥용김	합 계
거래량만 속	1,216	1,187	1,058	846	4,307
비율(%)	28.2	27.5	24.6	19.6	100.0

자료 : 상동

활어 시장동향

이번 활어 시장동향은 2006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활어의 소비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이다.

● 표본 설계 및 구성

* 표본은 2005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비례 할당 후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7% 포인트다.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여성이 51.1%인 358명, 남성이 48.9%인 342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1.0%, 30대 24.1%, 40대 22.9%, 50대 14.4%, 60대 이상이 17.6%였다. 그 외에도 결혼여부, 거주지, 가족 구성원 수, 가구 월평균 소득 등에 따라 기술 통계분석으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 표본의 일반적 특성 〉

(단위 : 명, %)

구분		표본 수	비중(%)	구분		표본 수	비중(%)
성 별	남성	342	48.9	결혼 여부	기 혼	538	76.9
	여성	358	51.1		미 혼	162	23.1
연 령	20~29세	147	21.0	가족수	1인	33	4.7
	30~39세	169	24.1		2인	122	17.4
	40~49세	160	22.9		3인	130	18.6
	50~59세	101	14.4		4인	313	44.7
	60세 이상	123	17.6		5인 이상	102	14.6
거주 지역	수도권	343	49.0	월평균 소득	199만원 이하	166	23.7
	영남권	192	27.4		200~299만원	210	30.0
	호남권	74	10.6		300~399만원	138	19.7
	충청권	69	9.9		400만원 이상	112	16.0
	강원권	22	3.1		무응답	74	10.6
합 계		700	100.0	합 계		700	100.0

● 소비자 83%, '활어회를 좋아한다'고 응답

전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활어회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활어회를 좋아한다'고 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좋아한다'는 비율이 인천 92.3%, 부산/경남 89.7%로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과 충청권은 각각 63.6%,

73.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연안지역 소비자의 활어회 선호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활어회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7%가 '맛이 좋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건강에 좋기 때문'이라는 답변비율이 높았다.

〈 지역별 활어회 선호도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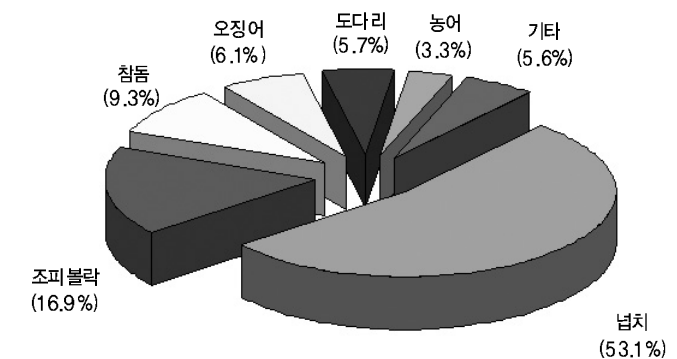
구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광주 /전라	대전 /충청	강원	전국 평균
매우 좋아함	32.2	38.5	21.1	22.2	14.7	14.9	29.0	4.5	23.6
좋아함	52.6	53.8	61.8	67.5	68.0	66.2	46.4	59.1	59.8
싫어함	14.5	0.0	14.5	7.7	16.0	17.6	24.6	36.4	14.7
매우 싫어함	0.7	7.7	2.6	2.6	1.3	1.4	0.0	0.0	1.9

● 어종별 소비자 선호도, 넙치 · 조피볼락 · 참돔 순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어종으로는 '넙치'라고 응답한 비율이 5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조피볼락', '참돔', '오징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횡감용 어종 선택 시 가장 중요시하는 기준으로는 '신선도'가 65.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가격 11.6%, 어종 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어종별 소비자 선호도 〉



주 : 기타 어종에는 전어 1.4%, 민어 1.3%, 송어 1.0%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 67.1%,
'활어 구입 시
원산지 확인한다' 고
응답

활어를 구입할 때 원산지를 확인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7.1%는 원산지를 확인하며 나머지 32.9%는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확인한다'는 응답 비율은 남자보다는 '여자', 미혼보다는 '기혼',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 원산지 확인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단위 : %)

구분	전체	성별		결혼유무		연령별				
		남자	여자	기혼	미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확인함	67.1	62.9	71.2	69.9	58.0	60.5	67.4	70.0	71.3	67.5
확인안함	32.9	37.1	28.8	30.1	42.0	39.5	32.6	30.0	28.7	32.5

● 소비자, 국산
활어에 대한 추가
지출 의향 높아

국산 활어에 대한 추가 지출의향을 조사한 결과, 중국산 활어보다는 응답자의 78.1%가, 일본산보다는 68.0%가 국산 활어에 추가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추가 지출 정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 이상이 국산 활어를 수입 활어보다 10%까지 돈을 더 주고도 구입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산 활어에 대한 추가 지출 의향 〉

(단위 : %)

구분		중국산 대비 국산	일본산 대비 국산
추가 지출의향 없다		21.9	32.0
추가 지출의향 있다	10% 이하	43.4	40.9
	11~20%	21.9	17.4
	21~30%	6.4	5.3
	31% 이상	6.4	4.4

● 국내 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는
높으나 실제
구매비율은 낮아

활어의 원산지별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9.1%가 한국산을 선호한다고 답했으며, 0.9%만이 일본산 활어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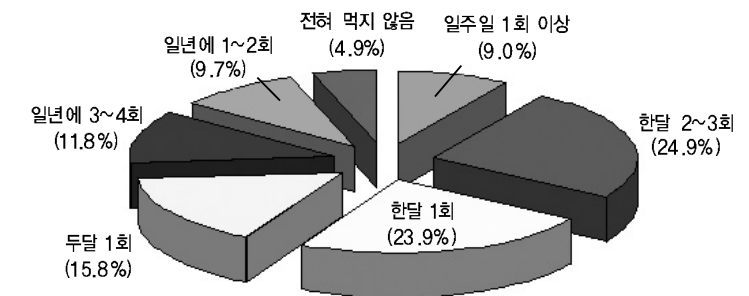
반면, '한국산만 구매한다'는 응답 비율이 33.0%로 나타나 국산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활어도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 57.8%,
한달에 1회 이상
활어회를 먹어

소비자들이 활어회를 얼마나 자주 먹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한달에 2~3회라는 응답이 2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57.8%는 한달에 1회 이상 활어회를 먹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주일에 1회 이상 먹는다는 응답도 9.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활어회를 전혀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4.9%였다.

〈 활어회 소비빈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 활어회 소비빈도,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영남권이 가장 높아

연령별 활어회 소비빈도를 조사한 결과, 40대의 활어회 소비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50대, 30대, 20대 순이었다. 또한 지역별로는 영남권 소비자의 활어회 소비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 · 지역별 활어회 소비빈도 〉

(단위 : 명, %)

구분	연령별					지역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표본 수	147	169	160	101	123	343	192	74	69	22
일주일에 1회 이상	4.1	9.5	12.5	14.9	4.9	5.2	18.2	4.1	8.7	4.5
한 달에 2~3회	20.4	27.8	30.0	27.7	17.1	23.3	29.7	23.0	23.2	18.2
한 달에 1회	31.3	21.3	24.4	18.8	22.0	30.6	17.7	18.9	15.9	13.6
두 달에 1회	19.7	18.9	10.0	13.9	16.3	11.7	20.8	29.7	7.2	18.2
일년에 3~4회	12.2	11.8	9.4	10.9	15.4	13.7	9.4	6.8	17.4	4.5
일년에 1~2회	6.1	8.9	10.6	5.9	17.1	11.4	3.6	6.8	21.7	9.1
전혀 먹지 않음	6.1	1.8	3.1	7.9	7.3	4.1	0.5	10.8	5.8	31.8

또한 직업별 및 가구소득별 활어회 소비빈도를 조사한 결과,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활어회 소비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소득 수준별로는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활어회를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업별 · 가구 소득별 활어회 소비빈도 〉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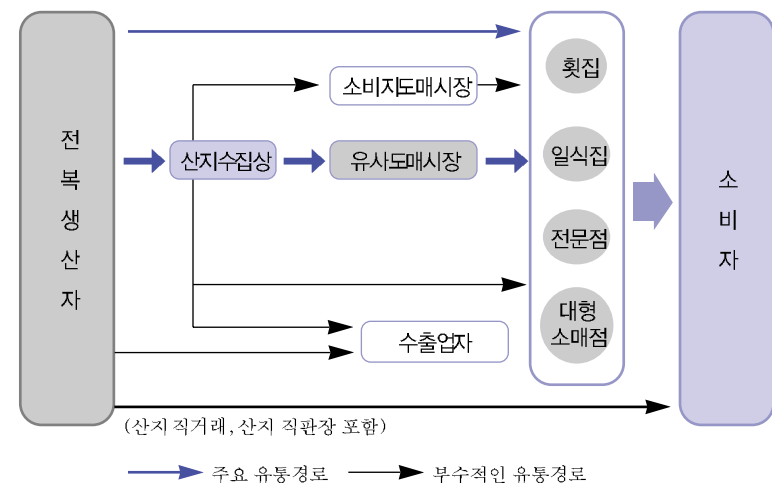
구분	직업별					가구 소득별(만 원)				
	자영업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	무직	199 이하	200~299	300~399	400 이상	무응답
표본 수	122	247	215	51	61	166	210	138	112	74
일주에 1회 이상	12.3	11.7	5.6	0.0	8.2	9.6	9.5	8.7	13.4	0.0
한 달에 2~3회	35.2	27.5	17.7	15.7	24.6	21.1	26.2	27.5	27.7	20.3
한 달에 1회	27.0	23.5	20.0	37.3	23.0	19.3	23.3	26.1	30.4	21.6
두 달에 1회	6.6	17.0	18.1	17.6	21.3	18.7	16.2	14.5	11.6	17.6
일년에 3~4회	9.0	10.1	14.0	17.6	13.1	11.4	11.0	15.2	8.9	13.5
일년에 1~2회	7.4	4.9	18.6	7.8	4.9	12.0	10.0	6.5	6.3	14.9
전혀 먹지 않음	2.5	5.3	6.0	3.9	4.9	7.8	3.8	1.4	1.8	12.2

전복 시장동향

● 전복 산지 유통경로, 산지수집상을 통해 도매시장으로

전복의 국내 유통은 주로 산지수집상을 통해 인천, 하남 등의 유사도매시장이나 소비지도매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직접 혹은 산지수집상을 통해 수집한다. 전복 산지수집상은 수집한 전복을 가격별로 재선별하여 분산하는 등 실질적인 산지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전복의 주요 유통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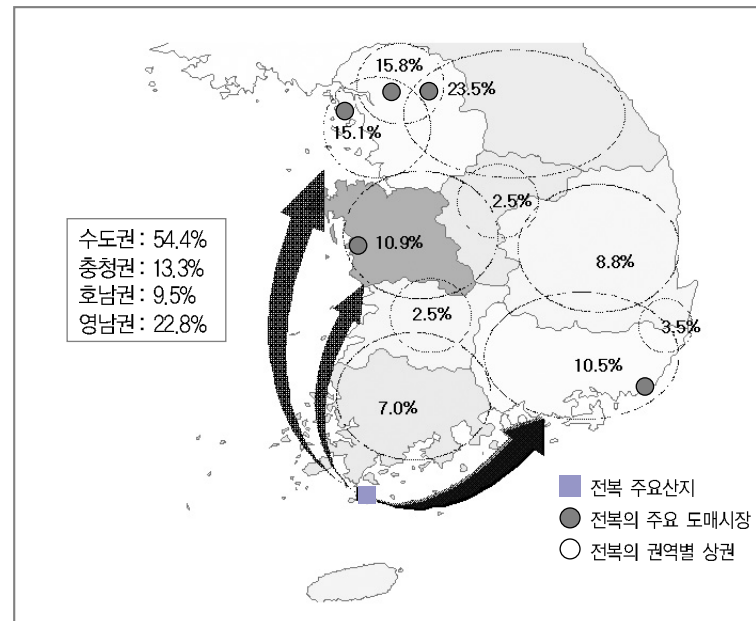
● 전복의 도매시장 거래 물량, 2,000여 톤 이상으로 추정

전복의 도매시장 거래동향(수출 및 직거래 제외)을 조사한 결과, 전국 도매거래 물량은 2,000여 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54.4%가 수도권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는 영남권 22.8%, 충청권 13.3%가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청권의 경우 권역별 인구수에 비해 전복 거래물량이 많은데 이는 소비지가 비교적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천혜의 자연여건을 갖춘 대천 활어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복 거래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호남권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 전복 생산자가 직접 소비지에 전복전문점을 개점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활어도매시장을 점유하지 않는 생산자 직거래를 통한 거래물량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 전복의 권역별 도매상권 분포도 (수출 및 직거래 제외) 〉



● 대규모 전복 도매상, 연간 60~90톤 전복 유통

주요 활어 도매시장의 전복 도매상 수는 주로 10~20명 내외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 대규모 도매상 수는 시장별로 2~5명으로 연간 1인당 60~90톤의 전복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활어 시장의 전복 도매상은 대부분 전복과 함께 키조개, 가리비 등의 패류를 취급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거래물량이 가장 많은 하남 시장의 경우에는 전복 한품목만 거래하는 전복 전문 도매상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 도매 시장에서 거래되는 전복, 12~17마리 크기가 가장 많아

도매시장의 전복 거래동향을 조사한 결과, 예전에는 kg당 10~11마리 크기가 주거래 규격이었으나 최근에는 12~17마리 크기의 거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전복 생산량의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다양한 전복 음식(전복 구이, 전복탕 등)이 개발되었고, 이러한 음식에 사용되는 전복은 주로 가격이 저렴하고 살이 연한 작은 크기의 전복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 전복, 크기별 '판매처' 및 '용도' 달라

전복 크기별 판로를 보면, kg당 7~8마리 크기는 백화점이나 호텔 등의 '고급 음식점', 8~10마리는 '일식집', 10~15마리는 '횃집'으로 주로 판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용도별로 보면, kg당 10~12마리 크기는 주로 '횃감용'으로 이용되며, 15~17마리는 '구이용'이나 '탕용'으로 이용된다. 한편 최근에는 kg당 40~50마리 크기의 전복도 시장에서 유통되는데 이 규격은 주로 '찌개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전복의 크기별 주요 판매처 및 용도 〉

kg당 마리수	주요 판매처	kg당 마리수	주요 판매처
7~8마리	고급음식점(백화점 호텔)	10~12마리	횃감용(전복 회)
8~10마리	일식집 등	15~17마리	구이용 탕용 (전복 삼계탕 등)
10~15마리	일반 횃집	40~50마리	찌개용(해물 된장국 등)

주: 주요 판매처 및 용도는 전복 도매상과의 면담조사를 통해 도출한 결과임

●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복 선호도 높아

서울지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전복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6%는 전복을 '좋아한다'고 답했으며, '싫어한다'는 응답은 11.8%였다.

또한 여자보다는 남자가 그리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전복을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전복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 성별·연령별·직업별 전복 선호도 〉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직업별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자영업	직장인	주부	학생
매우 싫어함	1.0	0.8	1.2	1.4	0.0	1.6	1.1	1.6	1.2	0.9	0.0
싫어함	10.8	8.5	13.1	15.4	14.5	6.3	4.3	9.8	9.9	12.3	12.5
보통	32.6	32.3	32.9	38.5	30.4	33.1	26.1	21.3	35.6	32.5	35.9
좋아함	45.2	46.0	44.4	35.0	43.5	51.2	55.4	49.2	42.3	49.1	40.6
매우 좋아함	10.4	12.5	8.3	9.8	11.6	7.9	13.0	18.0	11.1	5.3	10.9

● 전복을 선호하는
이유, 맛과 건강에
좋아서

전복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4.7%가 '맛이
좋기 때문' 이라고 답했으며, 다음은 건강에 좋기 때문(38.8%),
고급음식의 이미지 때문(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 주부
의 경우에는 맛보다는 건강 때문에 전복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 전복 소비 횟수,
연간 3.6회

최근 3년간 전복을 먹어본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의 74.2%가 전복을 먹어본 경험이 있으며, 25.8%는 전혀 먹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복을 먹어본 사람들은 연평
균 3.6회, 즉 3개월에 한번 정도 전복을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복의 소비 횟수를 각 표본의 그룹별로 보면, 여성보다는 남
성, 연령별로는 40대,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전복을 먹는 횟수
가 많았다. 또한 가족수가 많을수록, 가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전복을 더 자주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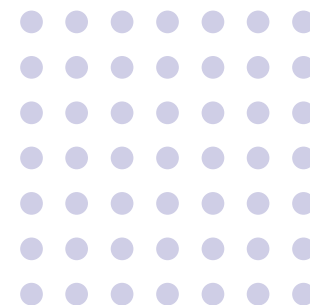
〈 성별 · 연령별 · 직업별 전복 선호도 〉

(단위 : 회)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가족수별			
		남자	여자	20대	30대	40대	50대	1명	2명	3명	4명 이상
소비횟수	3.6	3.8	3.4	2.9	3.4	4.5	3.9	2.8	2.9	3.4	3.8

구분	직업별					가구 소득별 (만 원)						
	자영업	직장인	주부	학생	무직	199 이하	200~ 299	300~ 399	400~ 499	500~ 599	600 이상	무응답
소비횟수	6.4	3.3	3.3	2.8	1.8	2.5	2.1	3.2	3.7	4.1	5.4	5.0

Abroad



Part V

해외동향

일본 84
중국 95

KMI

01

일본 해외동향

해조류

● 2006년 11월에
붉은 갯병 발생

11월부터 일본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김 채취가 시작되었으나, 미야기현, 찌바현, 큐슈 등에서 붉은 갯병이 발생하여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 및 대책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구마모토현은 가을에 시설한 김밭의 철거가 이루어졌고, 아이치현과 세토나이지역에서는 분망이 시작되었으나 업체 유실로 다소 생산이 늦어졌다.

● 큐슈(九州)지역,
12월에 본격적인
냉동망 출고

2006년 12월에 구마모토현, 사가현, 후쿠오카현에서 본격적인 냉동망 출고 작업이 완료되었다. 세토나이지역은 성장 둔화로 생산이 늦었으나, 동북지역은 생산이 양호하다. 미야기현과 찌바현에서는 붉은 갯병이 해소되었으나, 각지에서 오리와 어류에 의한 피해(식해, 食害)가 증가하고 있다.

● 12월까지 마른김 누적
공판량, 2006년산
대비 30% 감소

2006년 10월 18일, 세토나이지역에서 2007년산 김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이후 12월말까지 마른김 누적공판량은 2006년산 대비 약 30%감소한 1,580만 속이었다.

이는 목표생산량 대비 16.7%로 크게 저조한 수준이며, 미야기현을 제외한 각지에서 전년에 비해 공판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고수온으로 인한 업체 성장부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마른김의 평균가격은 공판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품질이 저하되어 2005년 동월보다 3% 이상 낮은 속당 1,112엔이었다.

〈 일본의 2007년산 마른김 누적 공판실적(2006. 12. 3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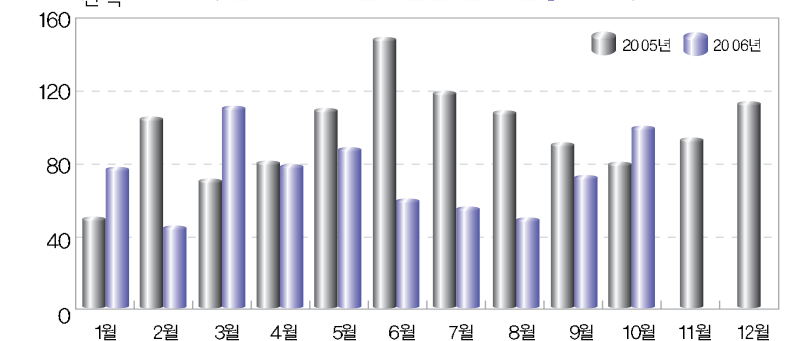
구분	목표생산량			공판금액 (백만 엔)	평균가격 (엔/속)
	목표량(만속)	누적공판량 (천 속)	달성률(%)		
2007년산	95,000	15,864	16.7%	17,648	1,112
2006년산	95,000	22,824	24.0%	26,356	1,155

● 김 수출량, 8월
이후 꾸준히 상승

일본의 김 수출량은 8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0월에는 전월 및 2005년 동월 대비 각각 42.1%, 27.4% 증가한 약 10만 속이었다.

수출대상국별로는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10월에는 전월 및 2005년 동월에 비해 40% 이상씩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국으로의 10월 수출량이 전월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3만 5000속을 기록하였다.

〈 일본의 연도별·월별 김 수출량 추이 〉



주: 매일 마른김 수출물량은 속당 320g을 적용
자료: (사)일본 수산물무역협회, 수산물무역통계연보]

● 김을 사용한
달걀(노리다마고,
のりたまご)판매

후쿠오카현 아사노우(朝倉)농업고등학교에서는 탈색된 김을 닭 사료에 첨가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달걀을 생산하였다. 이는 어업과 농업을 연계한 순환형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하였으며, 10월부터 학교 정문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또한 이 제품에는 『아사노우「노리다마고」』라는 상표, 「탈색된 김의 재활용」, 「항산화물질 2배(-카로틴)」이라고 적혀있다. <「해태산업정보센터」, 2006년 10월 10일>

〈 노리다마고 제품 〉



〈노리다마고 제품〉

〈노리다마고 포스터〉

● 라면업계, 전시회에
최초로 김관련 제품
다수 소개

2006년 10월 2~4일, 일본식 생라면 전문업체들은 업계 최초로 라면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는 249개 업체가 라면을 출품하였으며, 라면 고명에 사용되는 「김 관련 제품 코너」를 별도로 두어 이와 관련한 식재료 및 정보 등을 소개하였다. 한편 이번 전시품 중에서 파래김과 일반김을 원료로 만든 「자반김(バラ干しのり)」이 다수 출품되었는데, 이는 최근 라면 고명에 일반김보다 자반김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반김은 기존 가공김보다 색택이 좋고 흡여지지 않아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어 향후 김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海苔Times」(일본, 2006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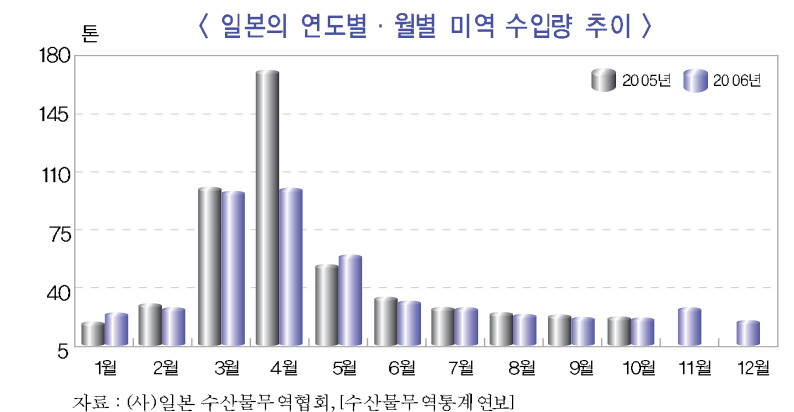
● 냉동미역 제품
생산에 주력

일본 리켄(理研)식품 회사는 2007년 1월부터 이와테(岩手)현에 냉동미역만을 생산하는 전용시설을 신설하여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근 냉동미역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냉동미역 제품은 해동 후 염치가 물러지거나 변색되는 등의 단점들이 많았으나 이 회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상품화에 성공하였다. 연간 생산량은 300톤 정도로 향후 1,500톤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2006년 10월의
미역 수입량, 전월
대비 소폭 증가

일본 미역 수입량은 4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10월에는 약 1,600톤으로 전월 대비 6.4% 증가하였으나, 2005년에 비해서는 5.9% 감소하였다. 미역의 제품별 수입량을 보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간미역이 10월에는 전월 및 2005년 동월 대비 각각 67.1%, 20.0% 증가한 518톤을 기록하였다. 반면 자른미역은 6월부터 평균 900톤 정도가 꾸준히 수출이 되었으나, 10월에는 838톤으로 전월 대비 약 5%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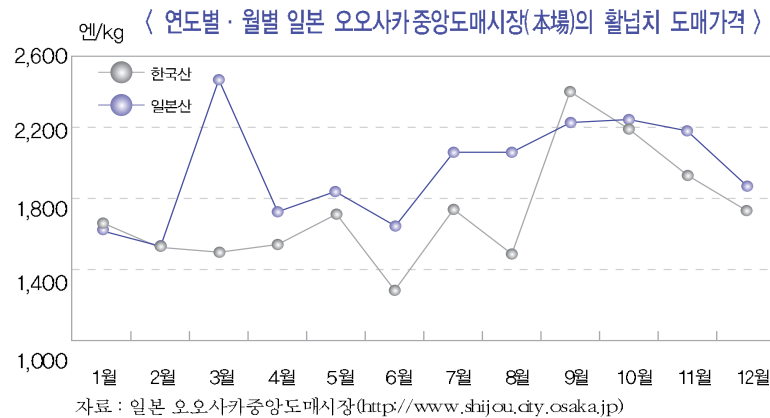


활어

2006년 12월의 한국산 활넙치 도매가격, 전월 대비 하락

2006년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本場)에서 거래된 한국산 활넙치의 연평균 도매가격은 2005년 대비 30% 이상 상승한 kg당 1,944엔이었는데, 이는 엔화약세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월별로는 7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12월에는 전월 대비 13.0% 하락한 kg당 약 1,800엔이었다.

한편 일본산도 2005년 대비 약 10% 상승한 kg당 1,730엔이었다. 월별로 보면 9월에 kg당 2,300엔으로 최고가를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2월에는 전월 대비 10% 이상 하락한 kg당 약 1,700엔이었다. 12월 들어 모두 도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일본의 자국산 활넙치 출하 증가로 시장반입량이 늘어나면서 한국산의 가격을 동반 하락시켰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 자연산 활넙치, 높은 가격에 거래

2006년 11월 도쿄(東京)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일본 자연산 활넙치 도매가격은 kg당 10,000엔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러나 자연산 활넙치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초봄이 되면 kg당 3,000~4,000엔 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2006년 11월의 참돔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2006년 11월 참돔 평균 도매가격은 전월 및 2005년 동월에 비해 시장반입량이 감소하면서 11월에는 전월 및 2005년 동월 대비 각각 0.4%, 51.7% 상승한 kg당 1,170엔이었다. 지역별로는 미에산이 전월 및 2005년 동월 대비 각각 4.3%, 45.9% 상승한 kg당 1,212엔이었으나, 에히메산은 전월 대비 0.3% 하락한 kg당 1,237엔이었다.

<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참돔 도매가격 > (단위 : kg, 엔)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2005년 동월 대비 (%)
반입량	225,729	220,875	225,667	213,642	-5.3	-33.0
평균	1,143	1,108	1,165	1,170	0.4	51.7
미에(三重)	1,154	1,737	1,162	1,212	4.3	45.9
에히메(愛媛)	1,152	1,169	1,241	1,237	-0.3	60.4
나가사키(長崎)	830	-	966	-	-	-

주 : 반입량은 시장전체의 반입량, 평균가격은 반입량 전체에 대한 평균 가격임
자료 : 일본 오오사카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tokei.metro.tokyo.jp>),
2006년 12월 30일 기준

일본산 참돔, 한국 수출 증가로 높은 가격 유지

도쿄중앙도매시장의 2006년 11월의 참돔 도매가격은 kg당 1,100~1,150엔으로 2005년 동기 대비 5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다. 또한 12월에도 2005년과 달리 도매가격이 강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으로의 수출 증가와 일부 중국 수출물량이 있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1월의 활농어 도매가격, 전월 대비 하락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2006년 11월 활농어 평균 도매가격은 8월 이후 시장반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1월에는 kg당 825엔으로 전월 대비 0.7% 하락하였으나, 2005년 동월에 비해서는 20% 이상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찰바산이 전월 대비 20% 이상 하락하였으며, 카나가와산도 전월 대비 12.7% 하락하였다. 그러나 미에산은 전월 대비 4.1% 상승한 kg당 1,403엔이었다.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활농어 가격 〉

(단위 : kg, 엔)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2005년 동월 대비 (%)
반입량	76,285	48,281	33,034	30,084	-8.9	9.5
평균	1,297	1,266	831	825	-0.7	29.1
찌바(千葉)	1,215	1,206	787	613	-22.1	33.0
카나가와(神奈川)	925	901	652	569	-12.7	24.2
미에(三重)	1,410	1,297	1,348	1,403	4.1	29.9

주 : 반입량은 시장전체의 반입량, 평균가격은 반입량 전체에 대한 평균 가격임

자료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tokei.metro.tokyo.jp>), 2006년 12월 30일 기준

● 10월부터 출하하는 배합사료 가격 상승

일본 배합사료 회사들은 10월에 출하하는 배합사료부터 원가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올해 들어 두 번째이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세계 사료 시장에서 매년 중국의 어분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고 어분 주산지인 페루 등의 어분 생산량이 감소하여 나타난 수급불균형 등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런 추세는 수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양식어기들의 경영에 큰 어려움을 줄 것이며, 육류 및 양식어 등의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양식용 생사료 연말에 포함세

9월부터 상승세를 보여온 생사료 가격이 12월 들어 포함세를 보였는데, 이는 방어류 등의 양식어가 본격적인 출하기를 맞이하면서 양식어의 생사료 사용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생사료 가격은 kg당 30엔 대에 거래되고 있으나, 앞으로 상승할 경우 4년 만에 처음으로 kg당 40엔을 넘어설 전망이다.

● 중국에서 일본 수산물 식문화 보급 캠페인 개최

나카사키(長崎)현 중·일 수출입촉진협회는 9월 25일부터 11일간 중국 상하이에서 「중·일공동수산물 식문화 보급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에는 협회장, 어협, 시장관계자 등 30명이 참가하여 상하이의 백화점과 대형소매점 등에서 일본 수산물(방어, 전갱이, 고등어, 잭방어, 참돔 등)의 전시 및 시식

패류

● 2007년산 굴 10월 말부터 본격 출하

2006년 10월말부터 히로시마(廣島)의 생식용 굴 출하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본격적인 굴 출하가 이루어졌다.

2007년산 굴이 풍작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히로시마현은 평년 수준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고, 미야기현은 10월 초순 저기압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2006년 11월의 생굴 도매가격, 전월 대비 하락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생굴 평균 도매가격(알굴 기준)은 9월 이후 꾸준히 시장반입량이 늘어나면서 2006년 11월에는 kg당 452엔으로 전월 대비 2.4% 하락하였다. 그러나 2005년 동월에 비해서는 시장반입량이 다소 감소하면서 6%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히로시마산이 전월 대비 60% 이상 상승한 kg당 1,404엔으로 상승폭이 가장 큰 반면, 이와테산은 전월 대비 2.3% 하락한 kg당 431엔이었다.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생굴 가격 〉

(단위 : kg, 엔)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2005년 동월 대비 (%)
반입량	181,007	88,965	389,167	435,302	11.9	-1.5
평균	570	615	463	452	-2.4	6.9
히로시마(廣島)	1,243	1,138	865	1,404	62.3	89.7
미야기(宮城)	427	438	396	399	0.8	11.8
이와테(岩手)	653	931	441	431	-2.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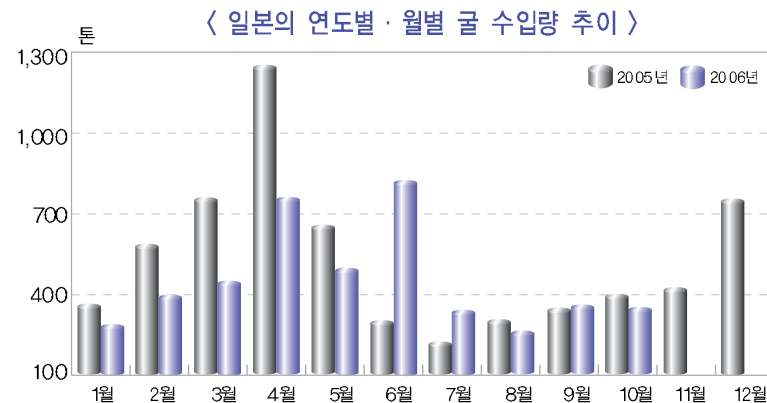
주 : 반입량은 시장전체의 반입량, 평균가격은 반입량 전체에 대한 평균 가격임

자료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tokei.metro.tokyo.jp>), 2006년 12월 30일 기준

● 2006년 10월의 굴 수입량, 2005년 동월 대비 감소

일본의 굴 수입량은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월에는 358톤으로 전월 대비 19.7% 증가하였으나, 2005년 동월에 비해서는 9.3% 감소하였다.

주요 수입국별로 보면 한국은 8월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0월에는 전월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305톤이었으나, 2005년에 동월에 비해서는 약 10% 감소하였다. 중국은 7월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월에는 전월 및 2005년 동월 대비 각각 18.5%, 73.2% 증가한 43톤이었다. 반면, 뉴질랜드는 6월에 31톤을 최고로 그 이후 수출이 미미하게 이루어져 10월에는 전월 및 2005년 동월에 비해 각각 60.4%, 22.2% 하락한 3톤이 수입되었다.



자료 : (사)일본 수산물무역협회, 「수산물무역통계연보」, 각 년도

● 2006년 '굴의 날' 행사 개최

2006년 11월 23일, '굴의 날'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하였다. 굴 최대 산지인 히로시마(広島)에서는 행사 참가자 중 선착순 200명에게 히로시마 굴을 선물로 주었고, 시식 코너 등을 운영해 각종 굴 요리를 먹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매코너도 설치하여 산지직송 알굴 및 가공품을 판매하였고, 기업소개 코너에서는 굴 관련 가공품을 소개하였다.

● 미야기산 굴, 맥주회사와 공동으로 행사 개최

2006년 11월 6일 일본 기린맥주회사는 미야기어련과 미야기농협의 공동 주최 하에 매스컴 관계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야기산 굴과 이찌방시보리(一番搾り : 기린맥주 브랜드)를 즐기는 저녁」이란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미야기산 굴'을 보다 광범위하게 알리고 미야기현의 먹거리와 관광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히로시마 굴, 관리인증제도 2년째 도입

히로시마현에서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굴에 대해서 '히로시마현 식품위생관리 인증제도'를 실시하며, 인증을 받은 업체는 이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마크를 부착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식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구축할 수 있다.

● 굴 식중독 정화 연구 실시

오카야마현 수산시험장과 마린노포럼21(수산양식연구회)은 허브 등 기능성 식물이나 유효미생물을 이용하여 굴에 대해 장염비브리오나 노로바이러스 등 식중독병원체를 정화하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굴 체내에 있는 질병과 무관한 세균 가운데 노로바이러스를 억제하는 세균을 발견하여 이를 굴에 먹여 식중독 병원체를 정화하는 것이다.

● 2006년 11월의 전복 도매가격, 전월 대비 상승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전복 평균 도매가격은 2006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시장반입량이 감소하면서 11월에는 kg당 8,119엔으로 전월 및 2005년 동월 대비 각각 2.7%, 8.5% 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 켄마산과 도쿄산이 전월 대비 각각 30.5%, 3.7% 상승하였으나, 미야기산은 4.0% 하락하였다.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의 산지별 전복 도매가격 〉

(단위 : kg,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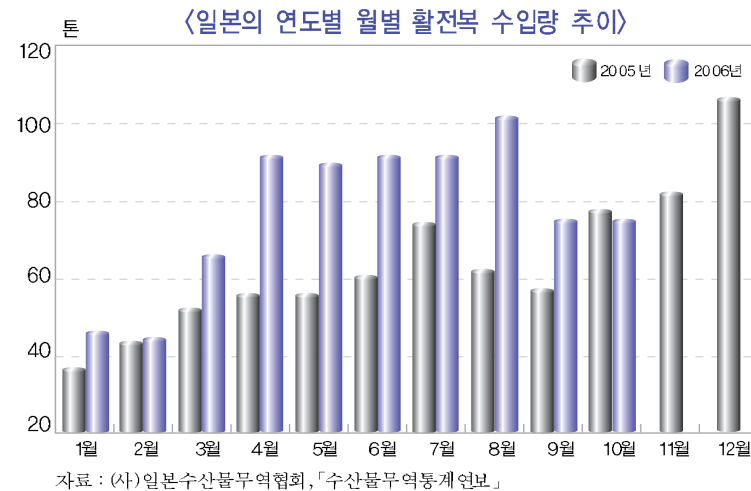
구분	8월	9월	10월	11월	전월 대비 (%)	2005년 동월 대비 (%)
반입량	55,212	43,251	43,539	42,381	-2.7	-14.8
평균	7,787	8,052	7,905	8,119	2.7	8.5
켄마(千葉)	8,118	8,417	6,601	8,616	30.5	17.8
도쿄(東京)	5,781	6,024	6,252	6,485	3.7	12.5
미야기(宮城)	8,609	9,337	8,920	8,562	-4.0	2.0

주 : 반입량은 시장전체의 반입량, 평균가격은 반입량 전체에 대한 평균 가격임

자료 : 일본 도쿄중앙도매시장(<http://www.shijou-tokei.metro.tokyo.jp>), 2006년 12월 30일 기준

● 2006년 10월의
전복 수입량, 전월
대비 소폭 감소

일본 활전복 수입량은 2006년 8월에 101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여 10월에는 전월 대비 0.8% 감소한 76톤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입국별로는 한국산 전복 수입량은 8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여 10월에는 전월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였으나, 2005년 동월에 비해서는 약 30% 증가하였다. 반면 호주산과 남아프리카공화국산은 4월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10월에는 전월 대비 각각 약 30% 증가한 20톤, 8톤이었다. 그러나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2005년에 비해 모든 월에서 대일 수출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국산이 일본산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 치바(千葉)현, 전복에
지역수산물
브랜드 도입

치바현은 우수한 품질의 수산물을 대상으로 '치바브랜드 수산물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중에서 전복을 포함한 신선수산물 5종과 가공품 3종에 유통단계에서부터 지역인증마크를 부착하고 생산자, 유통업자, 관광관계자의 협력 하에 인증수산물의 정착을 추진하였다.

〈「千葉縣農林水産部水産局 水産課」 치바브랜드 수산물 인증 및 인증마크 결정, 2006. 11.〉



태양의 맛 치바의 바다, 치바브랜드 수산물 인증품
〈치바브랜드수산물 인증마크〉

02

중국 해외동향

해조류

● 푸젠성 스스시,
신품종 김 종묘 및
냉동망 기술 보급

푸젠(福建)성 스스(石獅)시는 400ha의 김 종묘를 종묘시험장 및 지역 김 양식어가에 제공하였다. 또한 스스시 수산기술부서에서는 상하이 수산대학에서 "선푸(申福)1호"라는 신품종 김 종묘를 들여와 김 양식어가가 시험양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냉동망 양식기술을 보급하여 양식 어가의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 광둥성 난아오현,
김(단김) 양식의
규모화·산업화에
성공

최근 광둥(廣東)성 난아오(南澳)현은 5개의 김 종묘장을 새롭게 건설하고, 부표방식을 이용한 김 양식을 실시함으로써 해조류의 입체적인 새로운 양식 모델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난아오현은 6개 지역에 김 양식장을 개척함으로써 난아오현 전역에 걸쳐 김 양식의 규모화와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 2007년산
김 생산, 풍랑
피해로 예년보다
다소 부진

중국의 김 주산지인 장쑤(江蘇)성 렌윈강(連雲港) 지역에는 11월 하순부터 발생한 큰 풍랑으로 인해 김 채취가 늦어지고 있으며, 12월 20일 경부터 본격적인 김 생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풍랑 피해로 인해 이 지역에서의 연내 김 생산량은 예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생산 차질로 12월 초 렌윈강 지역에서 원초가격이 급등하였으나,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점차 안정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장쑤성 내 또 다른 김 주산지인 난통(南通) 지역에서는 풍랑 피해가 크지 않아 냉동망 출고 후 양호한 작황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김 채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활어

● 친저우시, 금창어·
날새기·Gray
Snapper 심해가두
리 양식에 최초 성공

최근 친저우(欽州)시 친난(欽南)구에서는 금창어(병어류, *Trachinotus blochii*), 날새기(농어류, *Rachycentron canadum*), Gray snapper(통돔류, *Lutjanus griseus*)의 심해중층가두리 양식에 최초로 성공하였다. 이들 세 어종의 서식지는 주로 인도양과 미주, 아프리카 등지이며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홍콩·마카오·대만 등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 하이난성, 대서양
넙치류 대규모
육상양식에 성공

최근 하이난(海南)성은 대서양 넙치류(Southern Flounder)의 대규모 육상양식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육상양식의 성공으로 인해 하이난성은 어류 생산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으며 어업인들의 수입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저장성, 오존수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

중국 저장(浙江)성 바이위에강(百悅康)오존 연구소와 러칭(樂清)시 해양어업국은 오존수 양식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다. 오존수 양식은 바닷물을 오존 처리하여 어류 성장에 최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그 성장속도를 촉진시키는 양식방법이다. 이러한 오존수 양식의 성공은 어류양식의 규모화와 산업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패류

● 다롄시 전복 동절기
이동 양식에 성공

다롄(大連)시는 지난 2년간의 실험 끝에 전복을 겨울에 남쪽 지방으로 옮겨 양식하는 방법에 성공하였다. 랴오닝(遼寧)성 해양어업청은 이번 양식의 성공으로 전복의 성장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전복 양식 규모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산둥(山東)성 등에서는 이미 이러한 월동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1

해황 및 기상예보

● 1월 수온전망
(국립수산과학원)

1월의 해역별 수온분포는 동해 중남부 해역 8~15℃, 남해 10~18℃, 서해 중남부 해역 5~11℃의 범위로 분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전 해역에서 표면혼합층의 깊이가 깊어지겠으며, 특히 1월은 표·저층의 혼합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기로 서해와 남해에서는 뚜렷한 수온약층의 존재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계 대마난류수의 영향의 약화로 동해상에서의 동한난류 북상류의 세기가 약해질 것으로 보이며, 남해 연안에서의 수온 전선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평년에 비하여 동해와 남해, 서해의 연안해역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해역에서 평년상 또는 1℃ 내외의 고온상을 보이겠다.

〈해역별 월별 수온 분포〉

(단위: °C)

구분	동해	남해	서해
2006년 1월	5.5~13.0	6.0~15.1	1.7~5.2
2월	5.3~12.6	6.4~14.2	0.3~5.0
3월	7.4~12.5	8.8~13.6	3.7~6.9
4월	9.4~11.5	12.0~14.9	8.3~11.4
5월	9.5~14.4	13.0~16.3	13.7~17.5
6월	15.6~17.6	14.5~19.9	18.8~22.0
7월	14.5~21.9	18.6~24.4	20.2~25.0
8월	16.3~25.6	22.4~29.0	22.4~30.0
9월	20.0~25.4	20.4~27.8	20.9~26.5
10월	16.0~21.3	18.1~24.1	17.5~22.5
11월	10.8~18.4	13.0~22.6	11.0~19.8
12월	8.1~13.0	8.5~17.7	4.0~12.3
2007년 1월	8.0~15.0	10.0~18.0	5.0~11.0

주: 2007년 1월은 전망치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월별 인공위성 관측자료

● 기상예보(기상청)

· 기간: 10월~12월

· 발표일: 9월 22일

기온은 평년 평균기온(-5~8℃)보다 높겠다. 1월과 2월에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나 대륙고기압의 확장에 따른 한기 남하로 추운 날이 있겠으며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다. 강수량은 평년(68~286mm)과 비슷하겠으나, 1월에는 대륙고기압의 확장 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서해안 및 내륙 산간지방에는 다소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산물 수급정보

Market Information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2007년 겨울호 제3권 1호 통권8호

◆발 행 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7-4 옥스포드 B/D 3층

TEL (02)2105-4020~9 FAX (02)2105-4939

http://www.foc.re.kr E-mail: foc@kmi.re.kr

■편집겸 발행인 : 이 정 환

■인 쇄 : 세븐스가든 TEL (02)2263-0066

■발 행 : 2007년 1월 19일

■등 록 : 2005년 5월 24일 서울마02932
